

2026 이란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9
가. 정부 현황	09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0
3. 주요 이슈 Pick	12
가. (경제·산업) 경제 제재 대응 및 자원 활용 강화	12
나. (인프라·자원) 전력·수도·에너지 관리 문제 대응	14
다. (외교·안보) 핵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지역 무장 세력 지원 및 국제 긴장	15
라. (환경·사회) 심각한 대기오염과 환경 관리 강화	16
마. (사회·정치) 경제·정치 불만으로 인한 사회 불안 가능성	17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9
가. 시장 특징	19
나. 무역	23
다. 산업	34
라. 투자	35
2. 유망 산업	38
가. 석유 및 가스 산업	38
나. 석유화학 산업	40
다. 자동차 산업	42
3. 협력 기회	45
가. 통상·G2G	45
나. 프로젝트	46
다. 공급망(자원개발)	47
라. 기타	47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9
2. 진출전략	51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62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66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68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9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9 |
| 3. 주요 이슈 Pick | 12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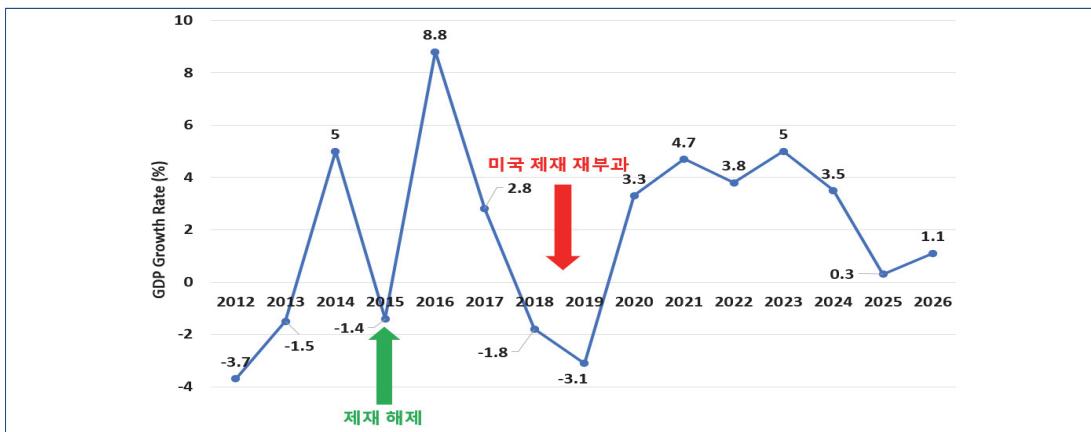
- 경제전망 : 상승 – '26년 1.1% → '25년 0.3%(IMF), 대·내외적 요인으로 하방 리스크 큼
- 국내 : 에너지 수출은 버팀목이나 미국의 경제 제재로 내수(소비·투자) 제약 지속
- 대외 : 핵 협상 불확실성, EU UN 제제 복원 가능성 및 지역 긴장으로 성장 압박

□ 경제 전망(요약)

- IMF가 2026년 경제성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EU와의 핵 협상 불확실성과 이스라엘과의 재충돌 위험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지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IMF 전망('25.4)에 따르면 이란의 GDP 성장률은 2024년 3.5%에서 2025년 0.3%로 둔화된 후 2026년 1.1%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IMF 전망은 '25년 6월 분쟁 이전 수치로, 지정학 긴장 고조와 스냅백 발생으로 '26년 하방 위험 커짐

〈이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료: KOTRA 테헤란무역관, IMF(2025.9.16.)

□ (호재 요인)

- 원유 수출 : 이란은 세계 3위 수준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으로, 제재 이전 일일 250만 배럴 이상 수출하였음

- 2018년 제재 재부과로 수출 급감 후, 2025년 약 150만 배럴/일 수준으로 회복
- 향후 핵 합의 또는 제재 완화 시 수출 회복과 성장 촉진 여지가 있음
 - * 원유 수출은 공식 통계 부재로 탱커 추적 기반 추정치이며, 지연·수정 가능성 있음
- 천연가스 :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중심으로 연간 약 2,750억m³ 생산유지
 - 투자·기술 제약에도 지역 에너지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중임
- 지정학 및 무역 기회 : BRICS·SCO 회원국 지위를 활용한 신시장 접근성 제고, 투자·협력 확대 가능성이 있음
 - 13개 인접국과의 통로 및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위치로 물류·에너지 허브 잠재력이 큼

□ (부진 요인)

- 대외 요인 : 미국 및 국제 제재, JCPOA 교착, 중동지역 긴장으로 석유·석유화학 수출, 외국인 투자, 금융거래가 제약받고 무역·투자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
- 국내 요인 : 높은 인플레이션과 리알 약세, 저성장, 복잡한 투자 절차, 전력·에너지 인프라 부족, 높은 실업 등으로 경제 안정성과 생활 여건이 악화되고 사회적 불만 확대 가능성성이 있음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83.08	84.04	84.84	85.69	86.55	86.63	87.5	88.38
명목 GDP	십억 달러	241.66	195.53	289.29	376.25	372.82	401.36	341.01	361.15
1인당 명목 GDP	달러	2,908.9	2,326.6	3,440	4,430	4,350	4,630	3,900	4,490
실질 성장률	%	-3.1	3.3	4.7	3.8	5	3.5	0.3	1.1
실업률	%	10.7	9.6	9.2	9	8.1	7.8	9.5	9.2
소비자물가 상승률	%	34.6	36.4	40.2	45.8	40.7	32.6	43.3	42.5
재정수지(GDP 대비)	%	-0.7	-0.4	3.9	3.8	2.8	2.7	0.9	1.3
총 수출	백만 달러	40,996	34,861	42,585	49,539	52,610	55,274	22,628	N/A
(對韓 수출)	백만 달러	2,134	8.60	5.69	11.11	3.7	8.8	0.9	N/A
총 수입	백만 달러	43,700	38,892	48,990	58,732	63,561	67,208	32,773	N/A
(對韓 수입)	백만 달러	282	186.3	177.5	195.5	183.3	157.7	85.2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2,704	-4,031	-6,405	-9,181	-10,951	-11,934	-10,145	N/A
경상수지	백만 달러	-1,651	-3,651	11,144	14,205	10,400	10,991	3,071	4,69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26,710	209,120	259,800	309,540	495,890	617,940	896,030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085	0.078	0.082	0.100	0.087	0.089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508	1.342	1.425	1.500	1.422	1.449	N/A	N/A

주: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GTA, UNCTAD, KITA, Bonbast

□ 현지 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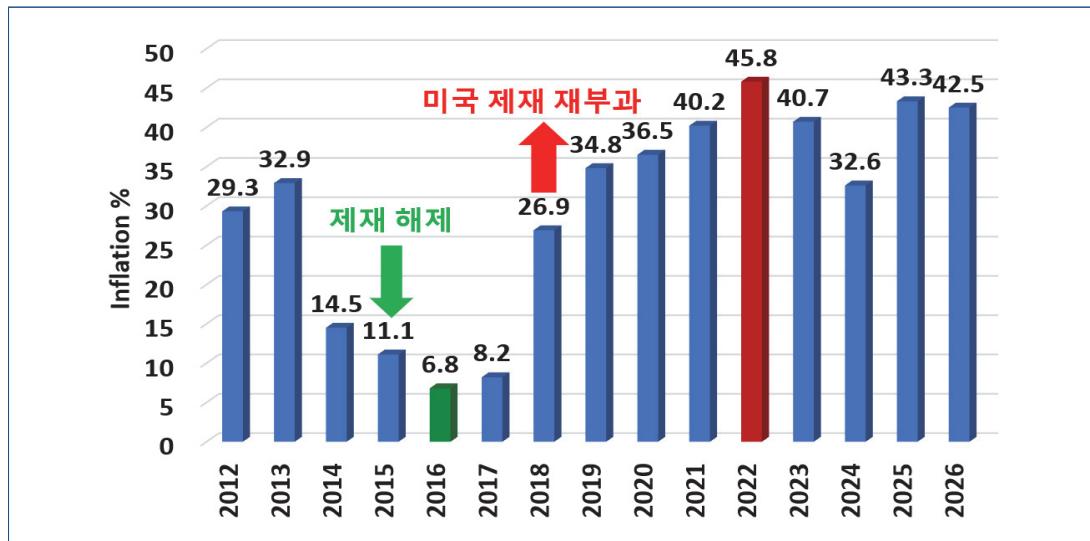
- (경제성장률)

- 이란의 성장률은 최근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였음. 2019년 -3.1% 위축 후 2020년 3.3%로 반등, 2021년 4.7%로 강화되었고 2022년 3.8%로 둔화 후 2023년 5.0%로 정점에 도달했음. 2025년은 추정치 0.3%로 급락, 2026년은 1.1%로 부분 회복할 전망임. 다만 핵 협상 교착 및 지역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성장 경로는 지정학 전개와 제재 완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임
- 중동 주요국 대비 변동 폭이 크고 안정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뚜렷함. UAE는 2020년 위축 이후 2026년까지 4~5%대의 안정적 회복세,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하락 후 2022년 7.5% 반등으로 비교적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중임

- (소비)

- 물가는 2022년 45.8%, 2023년 40.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25년 43.3%, 2026년 42.5%로 여전히 고인플레가 지속될 전망임. 가계 구매력과 소비는 지정학 리스크와 제재 불확실성에 민감함. 1인당 GDP는 2019년 2,909달러에서 2024년 4,633달러로 상승 후 2025년 3,897달러로 하락, 2026년 4,086달러로 일부 반등하나 2024년 수준에는 미달할 전망임. 중동 평균 물가는 2025~2026년 약 10%로 상대적 안정세이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1인당 GDP는 견조해 이란 대비 생활 수준 격차가 유지됨

<이란의 인플레이션>



자료: KOTRA 테헤란무역관, IMF(2025.9.16.)

- (민간투자)

- 전국 단위 신뢰 가능한 민간투자 통계는 제한적임. 2024년 자유무역지대 7곳에 약 13억 4,000만 달러의 국내자본 유입이 확인되었으나, 전반적 민간투자는 신뢰 부족, 구조적 비효율, 자본 유출로 약세를 보임. 잠재력은 약 1,0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나 국내 금융자원의 생산적 동원이 원활하지 못함. 이는 저축과 민간부문 역량의 성장 기여가 제약됨을 시사함

- (산업생산)

- 제재, 에너지 부족, 정전 등으로 산업 전반이 압박을 받는 중임. 자동차는 2024년 생산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음. 석유화학은 생산 증가에도 2025년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음. 반면 석유 부문은 생산과 수출이 안정적이거나 소폭 증가세를 유지 중임. UAE·사우디 아라비아가 에너지·석유화학·첨단제조 등에서 확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란 산업은 제약이 크고 석유 의존도가 높음

- (대외교역)

- 제재와 구조적 제약으로 무역 여건이 어려움. 연간 수출은 2023년 526억 달러, 2024년 553억 달러로 완만히 증가했으나 2025년 상반기 226억 달러로 2024년·2023년 동기 대비 감소했음. 수입은 2023년 636억 달러, 2024년 672억 달러, 2025년 상반기 328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임. 무역수지는 적자 기조가 지속되어 대외 의존과 국내 제품의 시장 접근 한계를 시사함. UAE·사우디 아라비아는 보다 균형적인 무역 구조와 안정적 성장으로 대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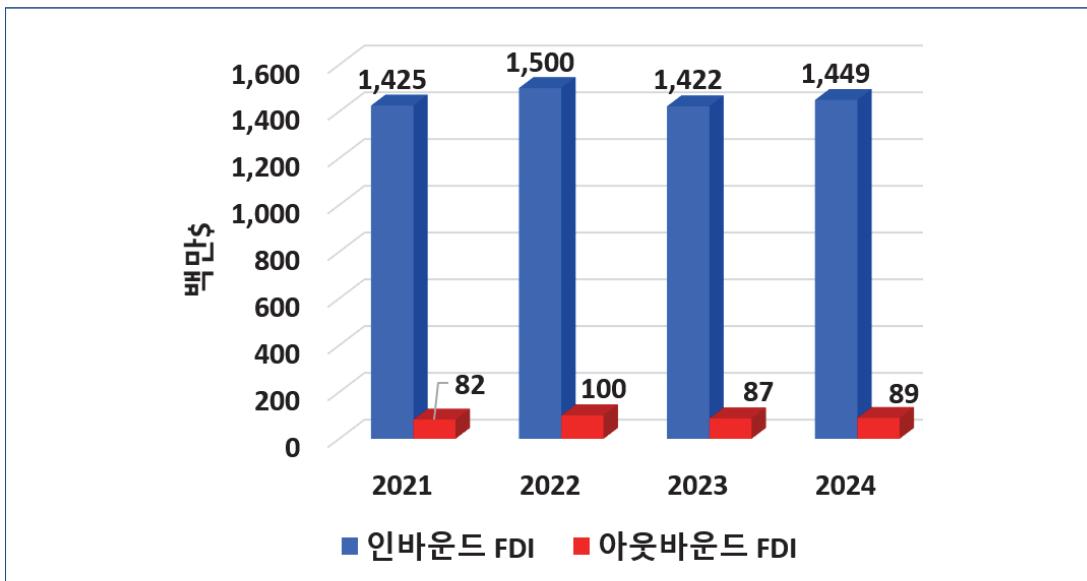
- (투자유입)

- FDI는 제한적이고 등락이 심함. UNCTAD 기준 2019년 15억 800만 달러 → 2020년 13억 4,200만 달러 → 2022년 15억 달러 소폭 회복 후 2023년 14억 2,200만 달러, 2024년 14억 4,900만 달러로 정체 국면임. 정부 발표 수치와 차이가 존재하며 공식 공개도 제한적임. 2025년 4월 약 70억 달러 규모 80개 프로젝트 승인 소식이 있으나 제재·정치 불확실성으로 실제 유입의 불확실성이 큼. 주요 투자국은 러시아, UAE, 아프가니스탄, 튀르키예, 이라크, 중국 등으로 파악됨. UAE·사우디의 대규모 FDI 유입과 비교해 이란의 매력도는 낮은 편임

- (투자 진출)

- 이란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연간 약 8~10억 달러 수준의 소규모에 머무름. 자본 부족, 고인플레, 통화가치 하락 등 국내 제약과 국제금융 접근 제한 등 외부 요인이 복합 작용함. 주 대상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튀르키예 등 인접국으로 문화·무역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며, 규모도 인프라·유통·서비스 등 중소형 위주임. UAE·사우디아라비아의 적극적 글로벌 투자와 대비되어 향후에도 제재와 거시 불안정이 지속되는 한 대외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임

〈2021년~2024년 이란의 FDI 규모 추이〉



자료: KOTRA 테헤란무역관, UNCTAD(2025.9.16.)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대통령 교체 및 현 정부 구성,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애로

- 마수드 페제시안은 라이시 사망 이후 대통령에 취임함. 개혁파와 최고지도자 간 조율 과제를 안고 있음
 - 2024년 7월 취임 이후, 전 국회의원·보건부 장관 출신으로서 외교·국방·핵외교에서 최고지도자 권한과 개혁파의 정책 지향을 균형 있게 맞추려 함. 국내 불안, 고인플레이션·실업, 사회적 불만은 외국기업의 거버넌스·경제개혁·투자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내각에는 경제 현대화와 국제 교류 강화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개혁 성향 관료가 포함됨. 외교·에너지·재무 등 주요 부처는 전략 집행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이끌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혁·핵 준수·제재 대응을 병행하려는 기조를 반영함
 - 정치적으로 개혁파와 원리주의 진영은 접근법에 차이가 있음. 개혁파는 국제 협력과 경제 자유화에 비교적 개방적이며, 원리주의는 이념과 종교적 기반을 중시함. 다만 양 진영 모두 거버넌스·국가 주권·핵심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상당 부분 공유함

□ 지역 정치 및 안정성 고려, 국내외 기업 영향

- 이란은 국내·지역적 압력으로 안정성과 경제 통합이 제약을 받는 상황임
 - 페르시아만 왕국(사우디아라비아·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이란은 제재·국내 불안·교착 상태의 핵 협상으로 제약됨. 2025년 6월 핵시설 공격 이후 지역 안보 우려가 확대되었으며,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하는 반면 이란은 러시아·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정치·경제·안보 지원을 모색함. 이는 각국의 규제 대응과 외국기업의 위험 평가에 차이를 줌
 - 지역 공급망·무역로·시장 접근성은 군사적 사건과 외교 전개에 민감함. 기업은 이란의 국제기구 참여 수준, 제재 스냅백 시나리오, 핵 준수 여부에 따라 규제 집행 강도와 은행 연결성의 변동성을 예상해야 함
 - 미국·이스라엘 등 타국의 보고와 성명은 이란의 미사일 역량과 대리 세력 지원을 강조하며, 이는 지역 안보 리스크와 외국 투자자의 운영 리스크를 높일 수 있음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대외정책(동방정책, 제재 상황)

- 외교·대외 정책 추진
 - 동방정책(Look to the East)을 통해 중국·러시아·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 중국과는 BRI 연계 및 25년 포괄협정으로 제도화, 러시아와는 에너지·무기·핵 기술 협력 심화, 인도와는 차바하르 항만 및 무역 회랑을 축으로 교역 확대를 중시함
 - 이란의 외교정책은 국제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음. 그 결과, 이란은 의료기기, 의약품, 농식품 등 인도적 목적의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음. UN 스냅백 메커니즘이 이미 발동되고 제재가 재부과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제재 완화 가능성은 낮으며, 산업용 수입 확대 여지도 제한적임. 이러한 조치들은 외부 제재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관계를 관리하려는 이란의 외교정책적 접근을 보여줌

□ 대내정책(자국생산 촉진, 에너지 정책 등)

- 국내 산업·경제 역량 강화 및 자원 관리
 - 정부는 지역생산 촉진, 핵심산업 지원, 국내 생산품목의 수입 제한을 통해 산업 기반을 보호·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재생에너지 도입을 병행함
 - 전력·수도 소비 관리, 산업용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 중임. 테헤란 등 대도시의 수압 저하와 여름철 주 3회·회당 약 2시간 정전 등 공급난이 지속되어 추가 절약정책·소비제한 규정 도입 가능성이 높음. 향후 산업·경제 계획 수립 시 핵심 고려 요인임
 - 전통 산업 현대화·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자원 제약 대응·제재 극복·국내 산업 강화가 정책 우선순위로 부각됨
- 환경 정책 및 대기오염 관련 정책
 - 겨울철 수도권·대도시의 미세먼지·스모그가 심각하여 공공기관 휴무, 임시 휴교, 일부 기업 휴업 조치가 빈발함. 환경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나 기업 활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산업 배출 규제강화, 차량운행 제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일부 EV 기술 수입 허용 등 복합 정책을 추진함. 대기오염 저감 장치·설비 수요 증대가 예상됨
 - EV·재생에너지 도입은 장기 환경전략의 일부로서 자원 부족 대응과 별개 트랙으로 관리됨. 2023년 이후 전기차 1.2만 대 이상을 수입한 바 있으며, 이는 EV 부품·재생에너지 장비 수출과 정책 연계 가능성을 시사함

- 노동 및 인력 정책

- 2022년 4월 외국인 투자자·기술 인력의 거주권 최소 투자액을 25만 달러에서 9만 달러로 완화함 (UNCTAD). 적용 대상은 기업 임원·기술자 및 그 배우자·자녀임
- 2018년 對이란 제재로 다수 한국기업이 철수한 바 있어, 2026년 재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에는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은 44시간, 유급 연차는 최소 12일(공휴일 포함). 정부는 주 44시간을 42.5 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말을 금요일 단독에서 목·금 이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법안은 의회·가디언위원회·관계 부처에서 수개월째 심의 중임

3. 주요 이슈 Pick

가. (경제·산업) 경제 제재 대응 및 자원 활용 강화

- 이란은 국제 제재와 외환 제약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는 석유·가스·석유화학 생산 확대 및 수출 증가를 통해 통화 안정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모색하고 있음. 장기적 외환 수입 확보와 산업 성장 촉진이 주요 정책 목표로 자리 잡고 있음

□ 배경 및 내용

-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제재가 강화되며 국제금융 접근이 제한되고, 외화 부족·환율 급락·물가 상승이 심화됨
 - 제재로 원유 수출이 큰 폭 감소했고, 중국이 사실상 유일한 주요 구매국으로 남아 외환 확보의 핵심 채널 역할을 하고 있음
- 원유·천연가스 생산능력 확충이 핵심 과제임. 신규 시추, 노후 인프라 개선, 국영기업 중심 투자확대가 진행 중임
 - 이란은 세계 3위 원유·2위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나 제재·기술·투자 접근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계 난방 수요 충족과 수출 증대가 병행 목표임
- 석유화학 산업은 제재하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며, 고부가·기술집약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제재 영향 완화를 도모함
 - 특히,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로 외환 수입을 늘려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 내수·수출 병행 전략을 지속 추진 중임
- 2025~2026년 핵 협상 결과에 따라 제재 완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미 UN 스냅백이 발생하고 미국 제재가 재부과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외환 불안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고인플레이션 재발 위험도 여전히 큼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 조치내역〉

- 2018년 8월 6일 이후 제재 복원(1차)
 -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이란 금 또는 귀금속 교역 제재
 - 이란 흑연, 금속(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에 대한 직간접 판매 및 공급 제재
 - 이란 리알화(Rial) 거래 및 이란 외 이란 리알화 사용, 자금 유지 및 거래 행위 제재
 - 이란 국공채 구입, 청약 및 발행 등과 관련 일체 행위 제재
 - 이란 자동차, 카펫 및 식료품 수입, 면허 및 관련 금융거래 인가 취소
 - 항공기 및 관련 부품 거래(수출입) 인가 취소 등

- 2018년 11월 4일 이후 제재 복원(2차)
 - 이란 항만, 해운, 조선 관련분야 제재[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IRISL)] 등
 - 원유 관련 제재(National Iranian Oil Company(NIOC), Naftiran Intertrade Company(NICO) 등
 - 이란과의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거래 제재
 -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 제재, 보험 및 재보험, 에너지분야 제재
 -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관련 제재, 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
- 2019년 정부인사 및 이란중앙은행 추가 제재
 - 이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부장관을 특별제재 대상(SDN) 지정
 - 이란 중앙은행(CBI)과 이란 국가개발펀드(NDF) 최고 수준 제재 : 관련 모든 거래 제재
- 2020년 추가 제재 조치
 - 이란 18개 시중은행 추가제재 등 지속적인 제재 행진 계속
- 2021년 추가 제재 조치
 - 이란 개인 15명, 3자 제재(secondary sanctions) 혐의 등으로 리스트에 추가 등재
- 2022년 추가 제재 조치
 - 이란 개인 5명, 석유화학 관련 기업 25개, 선박 3척 등 리스트에 추가 등재
- 2023년 추가 제재 조치
 - 이란 석유화학 및 달러화 거래 관련 기업 39개 등 리스트에 추가 등재
- 2024년 추가 제재 조치
 - 이란 개인 31명, 기업 9개, 기관 8개 기관, 선박 17척 및 항공기 1대 리스트에 추가 등재
- 2025년 추가 제재 조치
 -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계속되며 금융, 에너지, 해운, 기술 분야가 중심적으로 규제됨. OFAC는 개인·기업을 SDN 명단에 추가하며 거래 제한 강화

자료: 미국 재무부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

〈OFAC 웹사이트의 이란 제재〉

The screenshot shows the OFAC website's Iran Sanctions page.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idebar with links to various lists like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Consolidated Sanctions Lists, and Additional Sanctions Lists. A central box titled 'Important Advisories and Information' contains a list of recent guidance documents. To the right, a box titled 'RECENT ACTIONS REGARDING IRAN SANCTIONS' lists three specific actions with their release dates.

Recent Action	Release Date
Iran-related Designations	Sep 02, 2025
Iran-related Designations; Belarus Designation Removals	Aug 21, 2025
Iran-related Designations	Aug 07, 2025

자료: OFAC(2025.10.5.)

□ 관련 분야·산업

- 석유·가스는 핵심 수출원으로 관련 인프라·장비·기술 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제재 완화 시 수출 확대가 가능함
- 석유화학은 아시아·주변국 대상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산업용 화학제품 시장이 성장세를 보임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제재 완화 시 한국기업의 석유·가스 관련 장비, 석유화학 플랜트 기술, 산업용 기계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다만 금융 결제망 불안정, 운송 제한, 외환 확보 문제는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

나. (인프라·자원) 전력·수도·에너지 관리 문제 대응

- 이란은 전력·물·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자원 관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는 효율 향상·재생에너지 확산·산업 현대화 인센티브 등 종합 정책을 추진 중임

□ 배경 및 내용

- 전력 생산 부족은 약 20GW에 달하며, 여름철 산업용 정전과 가정용 전력 차단으로 이어짐. 노후 발전소 설비와 제한된 투자 여력이 근본 원인임
 - 전력 부족과 여름철 반복 정전으로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은 주·야간 교대 운영 조정, 생산량 축소, 일시 가동 중단을 겪고 있음. 이는 생산 계획·납품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운영비 증가와 공급망 부담을 초래함
- 수도 위기는 테헤란 등 대도시에서 수압 저하·제한 공급·농업용수 부족으로 나타나며, 기후변화·강수량 감소가 장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

〈테헤란 물 위기〉

بهران کمبود آب در تهران / آبیاری استان تهران درباره افت فشار آب اطلاعیه
فوری صادر کرد

سایت خبرگزاری اخباری اقتصاد | تاریخ انتشار: ۱۳۹۷/۰۷/۲۷ | شماره خبر: ۴۰۷۳۰۴۷۰۷۷۶

خبرگزاری اخباری تهران در اطلاعیه‌ای بر لزوم صرفه‌جویی، مستلزم ۲۰ درصدی در مصرف آب و بروز از مصرف غیرضروری در شرایط میتواند کمایی موجود را کاهند و استفاده از لوازم کاهنده مصرف بر روی شرایط با قابلیت صرفه‌جویی ۲۰ درصدی مصرف آب نوچیه شده است.

آهن برایس
خرید مطمئن آهن آلات
قیمت روز آهن

اوونیکس
با اوونیکس، بدون رسک همیشه سبز باشید

این "علا" نبازی به

자료: Donya-e-eqtesad News

- 겨울철 가스 소비 급증으로 추출·공급이 어려워지고 일부 지역에서 난방용 연료 공급 제한이 발생함. 산업생산 차질과 민원 증가가 동반됨
-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재생에너지 도입·산업 현대화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내수 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산업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관련 분야·산업

- 전력·설비·수도 인프라·재생에너지 기술·산업용 설비가 정책 지원과 직결되며 관련 장비 수요가 증가함. 물류·에너지 관리기술은 절약 정책과 연계되어 수요가 확대됨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전력·수도 장비, 에너지 관리 솔루션, 재생에너지 부품 수출 기회가 존재하며, 자원 부족 해소·효율 개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다만 내수 산업 보호 정책에 따른 특정 품목 수입 제한 가능성이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함

다. (외교·안보) 핵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지역 무장 세력 지원 및 국제 긴장

-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지역 무장 세력 지원은 국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2025년 미·이스라엘 공격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 향후 제재 완화 여부와 UN 스냅백 가능성은 지역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배경 및 내용

- JCPOA는 2015년 체결되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를 목표로 했으나, 2018년 미국 탈퇴 이후 제재가 강화되었고 이란의 핵 활동 확대로 갈등이 고조됨
- 2025~2026년 협상이 이루어질 때 제재 완화 가능성을 가능할 분수령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스냅백이 발생해 UN 제재가 재부과된 상황에서 외교 긴장은 심화하고 있으며, 이란의 반발 조치(IAEA 비협조, 대리 세력 공격 확대, 지역 불안정화 가능성 등)가 예상됨
-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레바논 헤즈볼라·예멘 후티·이라크 일부 무장단체 지원은 미·이스라엘이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며 국제적 마찰을 확대시키는 요인임
- 2025년 6월 미·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은 지역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켜 향후 협상 불확실성과 보복 가능성을 높였음

□ 관련 분야·산업

- 방위산업·사이버 보안·금융서비스·국제 운송 등은 제재 강화와 군사적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음
- 무역·금융 활동은 스냅백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으로 변동성이 커 투자·수출 전략에 불확실성을 초래함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수출 물류 운영과 금융결제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 지정 품목 및 금융·운송 제한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수임
- 제재 강화 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과 중장기 계획·현지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라. (환경·사회) 심각한 대기오염과 환경 관리 강화

- 하이드로카본 연소와 자동차 배출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며, 정부는 겨울철 휴무·산업 생산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EV·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임

□ 배경 및 내용

- 테헤란 등 주요 도시는 겨울철 난방용 연료 부족으로 발전소의 마주(mazut)·휘발유 연소와 자동차 배출가스가 겹치며 대기오염이 심화됨
 - 노후 오염 저감기술도 문제를 악화시키며, 정부는 미세먼지 경보·학교 폐쇄·공공기관 휴무·대중 교통 이용 촉진 등 조치를 시행함
- 전력 소비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계층화와 함께 과다소비 페널티·절약 인센티브를 적용 중임. EV·재생 에너지 도입은 장기 환경전략의 일부로, 2023년 이후 전기차 12,000대 이상을 수입하는 등 초기 확대 시도가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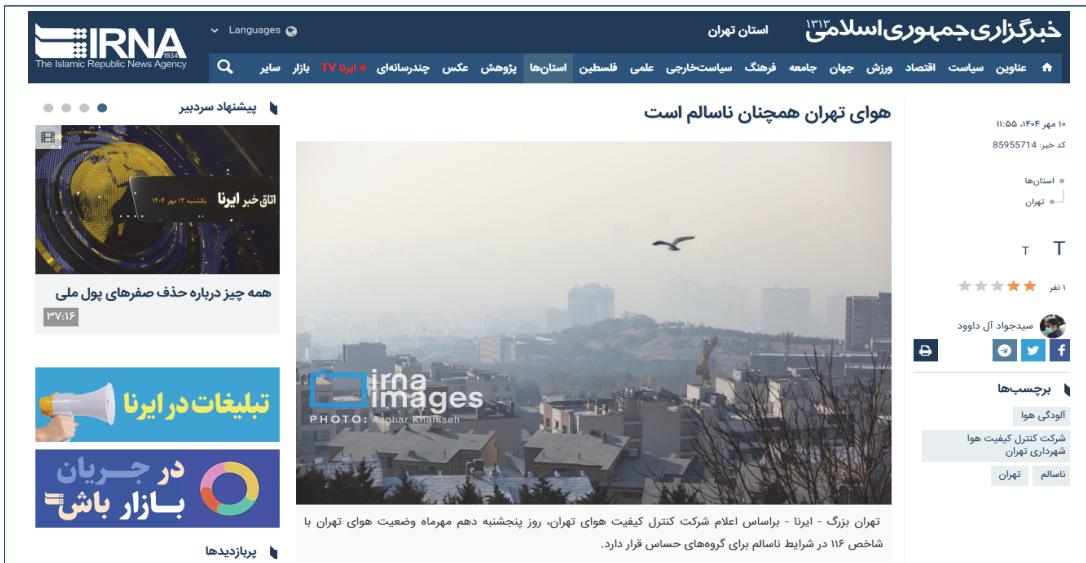
□ (관련 분야·산업)

- 공기청정기·환경 모니터링 장비·EV·재생에너지 산업이 정책 변화의 직접 영향을 받음. 정책 강화로 친환경 기술·제품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일부 산업은 생산 조정 필요성이 발생함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한국 기업은 공기질 관리 장비, 재생에너지 부품, EV 부품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일부 제품군의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시장 진입 대비가 필요함

〈테헤란의 대기오염〉



자료: IRNA News

마. (사회·정치) 경제·정치 불만으로 인한 사회 불안 가능성

- 이란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만으로 2017~2022년 다수 시위를 경험했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 불안 재발 우려가 존재함

□ 배경 및 내용

- 2017·2019·2022년 주요 시위는 물가 급등·청년 실업·정치 자유 제한을 계기로 발생했고, 강경 진압과 인터넷 차단이 동반되었음
- 정치 개혁 요구와 경제 불안정이 결합하면 시위가 대규모 사회 불안으로 확산할 위험이 큼
- 정부 내 개혁파·보수파 갈등은 정책 일관성을 저해해 경제 개방과 외교 협상력에 불확실성을 초래함

□ 관련 분야·산업

- 금융·물류·IT·소비재 등은 사회 불안정으로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이 큼
 - 사회 불안은 기업 운영비 증가와 시장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수출 계획·물류 운영·현지 파트너 관리에서 리스크를 반영한 대응이 필요함. 사회 불안은 단기 수요 변동성과 장기 사업 지속성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9
2. 유망 산업	38
3. 협력 기회	45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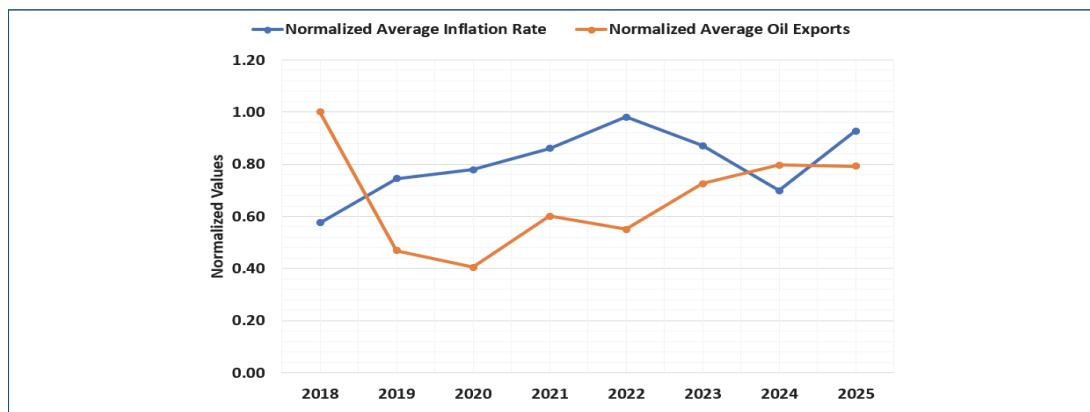
- 소비인구 8,600만 명의 중동 최대 내수시장이자 중동-CIS 연결 요충지
-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복원 및 지속에 따른 대외교역 애로 지속
- 경제제재 장기화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개발프로젝트 중단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중동 최대 내수시장이자 전략적 요충지
 - 이란은 인구 8,600만 명 이상으로 중동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며, 평균 연령 31.6세의 젊은 인구가 성장 동력을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는 다양한 산업·상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전망임
 - 2025년 4월 IMF 자료 기준 1인당 구매력 기준(PPP) GDP는 19,580달러로, 중동 내 높은 구매력을 시사함. 이에 따라 고가 제품·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수요가 존재함
-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제적 잠재력
 - 원유 매장량 2,086억 배럴(세계 3위)·가스 매장량 30조 m³(세계 2위),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약 7%를 보유하고 있음. 이는 거시 안정성과 장기적 소득 기반에 이바지함
 - 풍부한 자원 기반은 산업 다변화 정책과 결합하여 비석유 분야의 경제 활동·투자 확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다만 경제 구조의 석유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에너지 수출 변동이 인플레이션·재정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내수시장과 산업 발전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침

〈평균 인플레이션율 및 석유 수출〉



자료: KOTRA 테헤란무역관

□ 구매력, 소비 성향

- GDP 1인당 구매력(PPP) 추세
 - IMF 2025년 4월 자료 기준, GDP 1인당 구매력(PPP)은 2017년 USD 15,806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 USD 19,957, 2026년 USD 20,413에 이를 전망임.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구매력 증가와 시장 잠재력을 시사함
- 2025년 가계 소비 성장
 - BMI Fitch 「Iran Consumer & Retail Report - Q2 2025」에 따르면 2025년 이란의 실질 가계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2% 성장할 전망으로, 2024년 예상치 4.0% 대비 둔화함
 -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도 노동시장 회복력이 일정 부분 구매력을 지지하며, 가계는 비용 효율적 소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실질 가계 소비지출 전망〉



자료: BMI Fitch, Iran Consumer & Retail Report('25년 2분기)

□ 주요 인증

- 국가표준 인증 및 품질 관리
 - 식품·음료·화장품·전자제품·산업재·건축자재 등 특정 품목의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이란 국가표준 기구(INSO) 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품목은 국내 안전기준과 품질 관리 절차를 충족해야 함
- 할랄·의약품 및 산업재 인증
 - 식품·음료·화장품은 할랄 인증이 필수이며, 의약품·의료기기는 이란 식품의약청(IFDA) 승인이 필요

국가	인증명(인증기관)	분야	인증마크	주요사항
이란	Certificate of Conformity (이란 표준기구)	모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시기 : 1980년 • 인증절차 : 신청 후 검사 • 인증 소요비용 : 5~50달러 • 국내 지원기관 : 없음
	IFDA (이란 식약처)	식품, 의약,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시기 : 2002년 • 인증절차 : 수입 시 의무신고 • 인증 소요비용 : 50~300달러 • 국내 지원기관 : 없음
	HALAL (할랄)	식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서는 생산자가 생산 시점에 발급함 • 이란은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할랄 인증서를 인정함 •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인증서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란 당국에서 검증 필요 • 할랄 인증서는 음식이 이슬람 규정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보증함

□ 해당 시장의 전략적 가치

- 지정학적 요충지와 국제 교역 허브
 - 이란은 아시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튀르키예·인도·아프가니스탄 등 인근 중동·서남아·CIS 10개국과 활발한 경제·무역 교류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지역 내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국제 교역·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Transport Intelligence에 따르면 이란을 경유하는 물류 경로는 수에즈 운하·지중해 경로 대비 운송비를 약 30~40% 절감할 수 있어,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시장 진입 매력을 제공하고 있음

〈이란 및 주변국 위치〉



자료: KOTRA 테헤란무역관

- 산업 다변화와 장기적 성장 잠재력

- 석유 의존 축소와 비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은 시장의 장기 안정성과 외국인 투자 매력 제고에 잠재력이 큼. 이란은 최근 수년간 정부 일반예산의 석유 의존도를 약 30~35%까지 낮춘 바 있음
- 다만 여전히 석유 중심 구조가 뚜렷하며, 주변 산유국 대비 상대적으로 개선된 편이지만 제재와 경기 불안으로 최근 석유 비중이 다시 약 60% 수준으로 확대됨. 해당 정책의 실효성은 제재 완화와 대외 불확실성 해소 시 더욱 현실화될 전망임

- 시장 회복력과 전략적 안정성

- 에너지 자원·산업 기반·정책 방향성의 결합이 외부 충격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며, 제재 완화 국면에는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전략적 진출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 이란의 역외수출액은 2023년 526억 달러, 2024년 5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음
 - 2025년 6월 누계 기준 수출액은 2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했음
 - 주요 수출 대상국은 2024년과 2025년 6월 말 기준 모두 중국·이라크·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오만·러시아·아제르바이잔 순임
- (수입 규모)
 - 이란의 역외수입액은 2023년 635억 달러, 2024년 6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음
 - 2025년 6월 누계 기준 수입액은 3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음. 주요 수입국은 2024년과 2025년 6월 말 기준 아랍에미리트·중국·튀르키예·독일·인도·네덜란드·홍콩·러시아·스위스·파키스탄 등임

이란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수출	52.6	6.3	55.3	5.1	22.6	-13.8
역외수입	63.5	8.2	67.2	5.7	32.8	3.2
무역수지	-10.9	18.7	-11.9	9.0	-10.1	78.2
총 교역	116.2	7.3	112.5	5.4	55.4	-4.2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9.16.)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 이란의 수출 구조는 일부 핵심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이라크가 최대 비중을 차지함. 중국 비중은 2022년 31.5% → 2025년 6월 16.2%로 하락하며 구조 변화가 진행 중임
 - 이라크는 약 20% 내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2위 시장으로 자리함. 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는 각 8~13% 수준으로 직접 교역과 재수출 거점을 병행하는 핵심 허브임
 -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은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아프가니스탄은 2025년 상반기 8.2%로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함
 - 인도·오만·러시아·아제르바이잔은 2~4%의 중위권 시장을 형성하며, 러시아·아제르바이잔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2026 이란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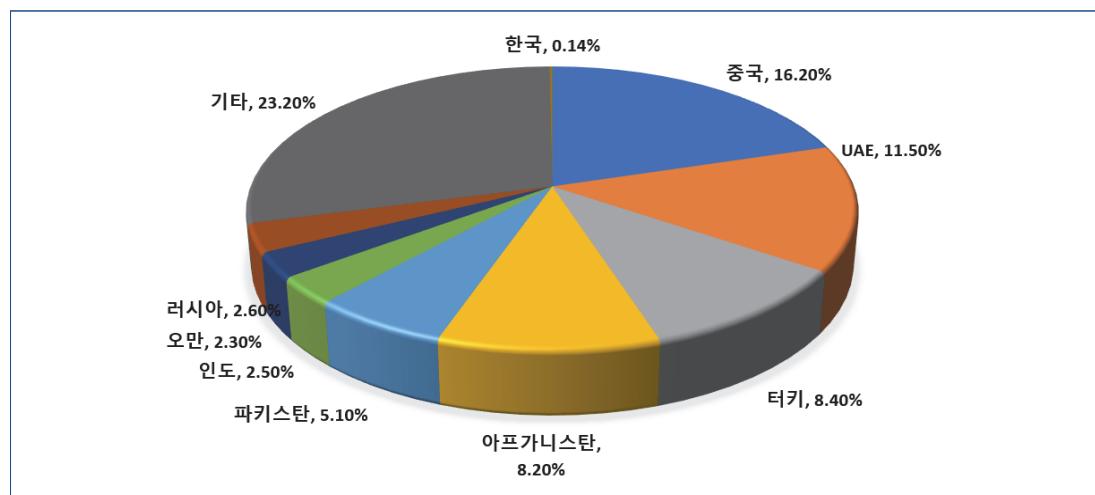
- 한국은 전체 수출 비중이 0.2% 미만으로 매우 미미함
- 종합적으로 중국·이라크 등 대형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인근국 중심의 점진적 다변화가 병행되는 구조임

이란 전체 수출 상위 10대 수출국의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국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6월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China	31.48	1	25	1	26.1	1	16.2	1
Iraq	14.8	2	22.5	2	20.9	2	20	2
UAE	12.1	3	11.2	3	12.8	3	11.5	3
Türkiye	11.7	4	13	4	11	4	8.4	4
Afghanistan	3.5	6	3.3	6	4.1	5	8.2	5
Pakistan	2.7	5	3.7	5	4	6	5.1	6
India	3.8	7	4.5	7	3.4	7	2.5	7
Oman	2.3	8	2.3	8	2.8	8	2.3	8
Russia	1.4	9	1.7	9	1.9	9	2.6	9
Azerbaijan	0.9	10	1	10	1.3	10	2.5	10
Korea	0.16	38	0.14	38	0.13	37	0.14	37

자료: 이란 관세청, Global Trade Atlas(2025.9.16.)

〈이란의 주요 수출 대상국(2025년 상반기)〉



자료: KOTRA 테헤란무역관, Global Trade Atlas(2025.9.16.)

- (수출 품목)

- 이란 수출은 광물연료·석유(HS 27)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임. 에너지 외에도 철강(HS 72)·플라스틱(HS 39)·유기화학품(HS 29)이 주요 산업 기반 수출 품목임
- 과실·견과류(HS 08)·채소류(HS 07) 등 농산물과 광석(HS 26)·구리(HS 74)·비료(HS 31)·알루미늄(HS 76)도 일정 비중의 수출 품목임
- 위 품목 구성은 자원 기반 수출과 산업재 수출 양 측면에서 이란의 강점을 보여주는 구조임

이란 전체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액 및 점유율 순위

(단위: USD백만)

순위	HS 코드 (2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6월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1	27	14,199	28.7	20,195	38.4	19,020	34.4	6,271	27.4
2	72	6,484	13.1	6,069	11.5	5,521	10	2,248	9.8
3	39	5,806	11.7	4,519	8.6	5,144	9.3	2,368	10.4
4	29	4,304	8.7	3,844	7.3	3,967	7.2	1,111	4.9
5	8	1,793	3.6	2,147	4.1	3,182	5.8	1,677	7.3
6	26	900	1.8	1,853	3.5	2,061	3.7	1,136	5
7	74	1,804	3.6	1,432	2.7	1,925	3.5	869	3.8
8	31	2,878	5.8	1,491	2.8	1,750	3.2	372	1.6
9	7	800	1.6	987	1.9	1,241	2.2	666	2.9
10	76	1,210	2.4	807	1.5	1,024	1.9	439	1.9
소계	-	40,178	81.2	43,344	82.4	44,835	81.1	17,157	75
전체	-	49,499	100	52,610	100	55,275	100	22,868	100

자료: 이란 관세청, Global Trade Atlas(2025.9.16.)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 이란의 수입 구조는 소수 핵심 교역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UAE·중국이 합계 절반 이상을 차지함. UAE는 2022년 이후 약 30%로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은 일관되게 약 25%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 튀르키예는 2022년 10.4% → 2025년 중반 약 16%로 비중을 확대하며 영향력이 커짐. 독일·인도·러시아·네덜란드·홍콩·스위스·파키스탄은 각 1~4% 수준의 제한적 비중임. 한국은 기간 내내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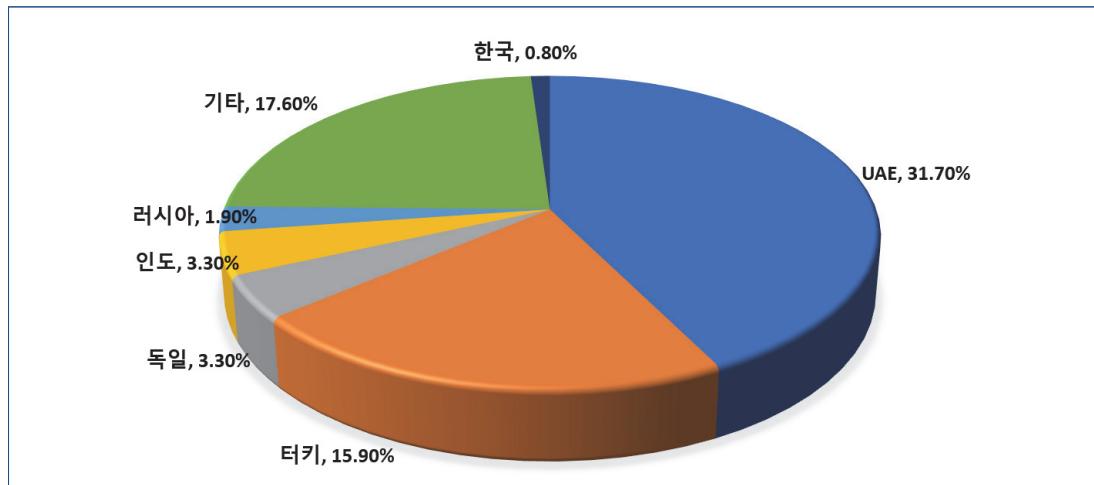
- 종합적으로 UAE·중국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유럽·아시아 다수 국가와의 교역으로 일정 수준의 다변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

이란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현황

국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6월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UAE	30.6	1	31.4	1	30.9	1	31.7	1
China	26.5	2	28.2	2	26.1	2	26.3	2
Türkiye	10.4	3	10.4	3	15.8	3	15.9	3
Germany	3.2	5	3.5	4	3.4	4	3.3	4
India	4.6	4	3.2	5	2.3	5	3.3	5
Russia	2.6	6	2.8	6	2.1	7	1.9	7
Netherlands	1.5	9	1.6	8	1.9	8	2.1	6
Hong Kong	0.8	11	1.3	10	1.8	9	1.7	8
Switzerland	2	7	1.6	9	1.4	10	1.2	9
Pakistan	1.3	10	1	11	1.1	11	1.2	10
Korea	1.2	8	1.1	12	0.9	12	0.8	12

자료: 이란 관세청, Global Trade Atlas(2025.9.16.)

〈이란의 주요 수입 대상국(2025년 상반기)〉



자료: KOTRA 테헤란무역관, Global Trade Atlas(2025.9.16.)

- (수입 품목)

- 이란의 수입은 기계류·기계 장치(HS 84)와 전기 장비(HS 85)가 중심을 이루며, 전체 수입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함
- 귀금속·보석류(HS 71)·곡물(HS 10)·자동차 및 부품(HS 87)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국내 산업·식품·교통 관련 수요를 반영함
- 특수 분류품목(HS 98)·광학·의료기기(HS 90)·식품산업 잔류물 및 사료(HS 23)·유지종자 및 기타 곡물류(HS 12)·플라스틱제품(HS 39) 등도 주요 수입 품목으로 꼽힘
- 전반적으로 산업용·농업용·전문 제품 등 다양한 품목 수입에 의존해 국내 소비와 생산을 지원하는 구조임

이란 전체 수입 상위 10대 품목의 수입액 및 점유율 순위

(단위: USD백만)

순위	HS 코드 (2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6월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1	84	7,495	12.77	9,450	14.87	9,604	14.29	4,553	12.46
2	85	7,143	12.17	7,347	11.56	7,390	11	3,903	10.68
3	71	3	0.01	958	1.51	5,769	8.59	3,513	9.61
4	10	8,487	14.46	7,523	11.84	4,999	7.44	4,029	11.03
5	87	2,786	4.74	2,669	4.2	4,020	5.98	1,918	5.25
6	98	3,228	5.5	5,094	8.02	3,771	5.61	2,220	6.07
7	90	1,439	2.45	1,744	2.74	2,136	3.18	1,006	2.75
8	23	666	1.13	1,036	1.63	2,072	3.08	631	1.73
9	12	2,109	3.59	2,392	3.77	2,012	2.99	1,209	3.31
10	39	1,754	2.99	1,803	2.84	1,962	2.92	1,025	2.8
소계	-	35,110	59.78	40,016	63.04	43,735	65.1	24,007	65.69
전체	-	58,726	100	63,561	100	67,208	100	36,549	100

자료: 이란 관세청, Global Trade Atlas(2025.9.16.)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 對이란 교역 규모는 2016~2017년 제재 완화 이후 증가세였으나, 2018년 하반기 미 제재 재개로 급감한 상태임. 2025년 9월 현재 한국은 인도적 교역 품목에 한해서만 이란과 교역 가능한 상황임
 - 2025년 1~8월 총 교역액은 9,620만 달러로 2024년 동기 10,950만 달러 대비 12.2% 감소함. 연간 총 교역액은 2024년 16,650만 달러(2023년 대비 -11.0%), 2023년 18,700만 달러 (-9.5%), 2022년 20,660만 달러(+12.8%)임
- 교역 규모
 - (수출) 2025년 1~8월 수출액은 9,510만 달러로 2024년 동기 10,350만 달러 대비 8.2% 감소임. 연간 수출액은 2024년 15,760백만 달러(-14.0%), 2023년 18,330만 달러(-6.2%), 2022년 19,550만 달러(+10.1%)임
 - (수입) 2025년 1~8월 수입액은 110만 달러로 2024년 동기 600만 달러 대비 81.9% 급감임. 연간 수입액은 2024년 890만 달러(+138.4%), 2023년 370만 달러(-66.5%), 2022년 1,110만 달러(+95.3%)임
 - (무역수지) 2025년 1~8월 무역수지는 9,400만 달러 흑자로 2024년 동기 9,760만 달러 대비 3.7% 축소임. 연간 무역수지는 2024년 14,870만 달러 흑자(-17.2%), 2023년 17,960만 달러 흑자(-2.6%), 2022년 18,440만 달러 흑자(+7.3%)임

한국-이란 교역 규모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역외수출	183.3	-6.2	157.6	-14	95.1	-8.2
역외수입	3.7	-66.5	8.9	138.4	1.1	-81.9
무역수지	179.6	-2.6	148.7	-17.2	94	-3.7
총 교역	187	-9.5	166.5	-11	96.2	-12.2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9.16.)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2025년 1~8월 대이란 수출액은 9,510만 달러로 2024년 동기(10,350만 달러) 대비 8.2% 감소임. 기체·진공펌프(HS 8414, 1,800만 달러, +358.8%)가 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을 주도했으며, 승용자동차 등 차량(HS 8703, 700만 달러, +252.0%)도 교통 수요 증가로 크게 확대됨. 반면 자동차 부품·부속품(HS 8708, 500만 달러, -40.2%)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위축되었고, 액체펌프(HS 8413, 500만 달러, -24.5%)와 정형외과용 기기(HS 9021, 400만 달러, -31.6%)는 의료 산업 부문 수입 축소로 감소세임

한국의 대이란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158	-14.0		총 수출	95	-8.2
1	부분품과 부속품	13	7.9	1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18	358.8
2	진단·실험용 시약	8	-8.8	2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7	252.0
3	정형외과용 기기	8	-66.2	3	부분품과 부속품	5	-40.2
4	액체펌프	8	-30.3	4	액체펌프	5	-24.5
5	내과용·외과용·치과용	8	14.0	5	정형외과용 기기	4	-31.6
6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7	159.5	6	전동기와 발전기	4	1.6
7	전동기와 발전기	6	-10.4	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4	-3.1
8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5	-11.2	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3	-27.5
9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4	9.0	9	진단·실험용 시약	3	-43.5
10	파이프·보일러·동체·탱크	4	22.9	10	어망	2	64.5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09.16)

- (수입) 2025년 1~8월 대이란 수입액은 110만 달러로 2024년 동기(600만 달러) 대비 81.9% 급감임. 알칼로이드(HS 2939, 28만 달러, +358.8%)가 의약품 원료 수요 확대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으며, 대추·무화과·파인애플 등(HS 0804, 22만 달러, +252.0%)은 국내 식품 시장 수요로 크게 증가함. 반면 그림·데생·콜라주(HS 9701, 11만 달러, -40.2%)는 예술품 시장 위축으로 감소했고, 과채 주스(HS 2009, 9만 달러, -24.5%)와 도자제 타일(HS 6907, 7만 달러, -31.6%)은 소비재 수입 감소로 하락함

한국의 對이란 10대 수입 품목 동향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8.88	138.4		총 수입	1.08	-81.9
1	납괴	4.75	1,283.0	1	알칼로이드	0.28	358.8
2	전기기기 부품	0.88	0.0	2	대추, 무화과, 파인애플 등	0.22	252.0
3	기타 플라스틱 제품	0.83	210.4	3	그림·데생·콜라주	0.11	-40.2
4	대추, 무화과, 파인애플 등	0.49	8.6	4	과채 주스	0.09	-24.5
5	기타 견과류	0.30	283.0	5	도자제 타일	0.07	-31.6
6	과채 주스	0.28	-37.8	6	반도체·LED	0.05	1.6
7	알칼로이드	0.22	-47.5	7	냉동어류	0.04	-3.1
8	바닥 깔개(일반)	0.17	231.6	8	바닥 깔개(직조)	0.03	-27.5
9	기타 점토·광물	0.16	29.6	9	생강·향신료	0.02	-43.5
10	도자제 타일	0.15	105.4	10	석재·타일	0.02	64.5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09.16)

- **한국의 해당국(권역) 내 수출시장 점유율**

- 이란 관세청·Global Trade Atlas(2025년 9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이란 수출 점유율은 2022~2025년 상반기 0.1~0.2% 수준으로 미미하며, 순위는 37~38위에 머무름. 반면 중국 (16.2~31.5%, 1위)·이라크(14.8~22.5%, 2위)·아랍에미리트(11.2~12.8%, 3위)·튀르키예 (8.4~13%, 4위)가 시장을 장악하고, 아제르바이잔(0.9~2.5%, 10위)도 한국을 상회함. 한국의 추세는 2022년 0.2%→2024년 0.1%로 소폭 하락 후 2025년 상반기 0.1%로 안정되어 점유율이 낮고 정체됨
- 2024년에는 부분품·부속품(HS 8708, 1,300만 달러, +7.9%)이 1위 품목임. 진단·실험용 시약 (HS 3822, 800만 달러, -8.8%)과 정형외과용 기기(HS 9021, 800만 달러, -66.2%)가 뒤를 이었으나, 정형외과용 기기는 큰 폭의 감소임. 기체·진공펌프(HS 8414, 700만 달러, +159.5%)는 고성장 품목임. 액체펌프(HS 8413, 800만 달러, -30.3%)와 내과·외과·치과용 기기(HS 9018, 800만 달러, +14.0%)도 주요 품목임
- 2025년 1~8월에는 기체·진공펌프(HS 8414, 1,800만 달러, +358.8%)가 1위로 급부상한 품목임. 승용자동차 등 차량(HS 8703, 700만 달러, +252.0%)은 2위 신규 진입임. 반면 부분품·부속품(HS 8708, 500만 달러, -40.2%)과 진단·실험용 시약(HS 3822, 300만 달러, -43.5%)은 순위와 수출액이 동반 하락세임. 이는 한국의 산업용 장비·자동차 관련 품목경쟁력이 이란 시장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현재 의료기기·의약품·농산물·식품류는 미 對이란 경제제재의 인도적 예외 품목으로 거래 가능 품목임

□ 이란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이란 진출전략 : K사(현지 MP사에 수출 성약, HS 코드 90181990, 금액 ₩149,408,920)

- 제품의 비교우위 : 인체용 의료기기로서,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거래할 때 인도적 무역 품목만 제재 없이 거래 가능. 한국산 제품으로 품질과 안전성 검증 완료
- 필수 인증 : IFDA(이란 식약처)
- 성약 소요기간 : 2025년 8월 기준, 공식 서류 준비부터 KOTRA 확인서 발급까지 약 3~4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경로 : 기존 네트워크 및 KOTRA 지원, 현지 보건부·중앙은행 협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현재 외환 배정이 느리거나 중앙은행에서 중단될 수 있어, KOTRA는 이란 당국과의 면담과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인도적 무역은 한국 기관, 특히 KOTRA의 감독 하에서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래임
 - 따라서 KOTRA는 한국 기업들에게 결제를 받기 전에는 제품을 발송하지 말라고 항상 조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인도적 무역 거래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성공 사례로 보는 이란 진출전략 : N사(현지 DC사에 수출 성약, HS 코드 902129, 금액 ₩9,023,212,070)

- 제품의 비교우위 : 치과용 임플란트로 인도적 무역 품목에 해당하며, 한국 기술 기반의 품질 우수 제품.
- 필수 인증 : IFDA(이란 식약처)
- 성약 소요기간 : 2024년 기준, 준비부터 결제 완료까지 약 4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경로 : 현지 전시회 및 KOTRA 중개, 기존 바이어 추천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인도적 무역 거래에서 외환 배정 지연이나 결제 중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KOTR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금융 당국과 긴밀히 협의함
 - 한국 기업들은 KOTRA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요함



성공 사례로 보는 이란 진출전략 : R사(현지 IS사에 수출 성약, HS 코드 38221920, 금액 ₩2,624,290,000)

- 제품의 비교우위 : 혈당 측정용 스트립으로 인도적 무역 품목. 제재 대상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수출 가능
- 필수 인증 : IFDA(이란 식약처)
- 성약 소요기간 : 2024년 기준, KOTRA 확인서 포함 약 3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경로 : 현지 의료기기 거래 네트워크 및 KOTRA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인도적 무역 절차는 매우 엄격하며, KOTRA는 서류 검토와 현지 협의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안전하게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전 승인과 단계별 확인 없이는 거래 중 문제 발생 가능성 크므로, 한국 기업들은 결제 완료 전 제품 발송을 자제해야 함

□ 주요 경쟁국 동향

- 2025년 7월 기준 중국·한국·일본·베트남 모두 수입액 감소세였음
 -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024년 26.1% → 2025년 7월 누계 26.3%로 소폭 상승하며 1위를 견고히 유지함. 한국은 0.9 → 0.8%, 일본은 0.2 → 0.1%, 베트남은 0.08 → 0.06%로 하락함
 - 2024년 7월 대비 2025년 7월 이란 총 수입액이 2% 감소한 흐름과 맞물려,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쟁국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임

이란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단위: %)
중국	26.49	28.15	26.13	26.32	
일본	0.14	0.13	0.17	0.14	
한국	1.24	1.08	0.9	0.78	
베트남	0.07	0.08	0.08	0.06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9.16.)

□ 주재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환율 체계(다층 구조)
 - (필수품 NIMA 환율) 그룹1 품목(기본 식료품·의약품)에 적용되는 우대 환율로, 주로 유류 수익을 재원으로 함
 - (비필수품 NIMA 환율) 이란 정부가 필수품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금지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품 (그룹2 및 일부 그룹3)에 적용되며, CBI 감독 공식 NIMA 외환시장에서 합의된 환율을 기준으로 함
 - (자유시장 환율) 일반 국민·사적 송금·비공식 거래에 적용되며, 실제 경제의 외화 비용을 반영해 대체로 더 높은 수준임
 - 이란은 상품군 분류제도를 통해 수입 허용 여부·우선순위·환율 지원 유형(NIMA 우대 환율·자유 시장 환율 등)을 결정함. 해당 제도는 산업·광업·무역부(MIMT)와 중앙은행(CBI)이 관리하며, NIMA는 외환 배정과 직접 연계된 우대 환율임
 - (그룹의 구분)
 - 그룹1(필수품) : 밀·쌀·사료·식용유·콩류·의약품 등 기본 식료·의약품에 해당하며 최우선으로 외환이 배정됨. 주로 유류 수익 기반으로 재원이 지원됨
 - 그룹2(원자재·중간재·자본재) : 산업용 투입재·생산설비로 구성되며 21~27의 7개 하위그룹으로 세분됨. 일부 하위그룹은 NIMA 외환 배정 대상이나, 26·27은 민간 외화조달 비중이 높고 우선순위가 가장 낮음

- 그룹3(소비재) : 의류·화장품·일부 가정용품 등 비필수 소비재로 우선순위가 낮으며 자유시장 환율로만 수입 가능함
- 그룹4(사치·금지품) : 알코올·사치 식품·장식용 석재·일부 가전 등 금지·제한 품목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외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란의 외환정책 및 수입규제 효과

구분(품목)	'18.6.23.~8.7.	'18.8.7.~'22.3.20.	'22.3.21. 이후	2024년	비고
Group 1(필수품)*	\$1=38,000리알	\$1=42,000리알 고정		NIMA 환율 고정 (285,000리알)	정부환율 폐지
Group 2(산업재)	\$1=42,520리알		NIMA 환율* 변동		
Group 3(일반재)	\$1=42,000리알 +협상액	NIMA 환율* 변동		NIMA 환율 변동	시장환율에 연동
Group 4(사치품)	수입불가 (1,400개 품목)	수입불가 (2,000개 품목)	수입불가 (2,500개 품목)	수입불가 (2,500개 품목)	수입금지 확대 중

주: NIMA 환율('24.09.26일 매매기준을 465,965리알)

자료: 이란중앙은행(CBI)

• 규제 건수 및 주요 내용

- 이란은 미·국제 제재하에 있어 대부분의 국제무역이 제한됨. 현 단계에서 인도적 무역(EDD)만 합법 경로이며 의료기기·의약품·일부 농산물·식품이 해당됨. 수출입자는 이란 중앙은행(CBI)·보건부·KOTRA와 공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최종 단계에서 KOTRA가 무역서류 진위 확인서를 발급하여 합법적 은행 결제를 지원함
- 2021년 9월 30일 최고지도자 명령에 따라 한국산 가전제품의對이란 수출이 금지됨. 이란 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육성 조치로 설명함

• 관세·비관세 장벽

- 이란은 WTO 미가입국으로 국내생산 가능 품목에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필요 시 관세 인상 또는 수입금지 지정이 가능함
- 2022년 3월 사치품·사치식품·기계류·염료·안료·철강제품·고무제품·건축자재·자동차 등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며 수입 품목군 재분류·규제를 강화함

• 인도적 무역

- 복합적 규제·외환 환경 속에서 인도적 무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안정적 경로임. KOTRA 등 한국 기관의 감독하에 절차를 이행하며, EDD 요건준수 하 합법적 거래가 가능함

- 기타(향후 전망 등)

- 미·이란 핵 협상 진전 및 제재 해제 시 수입규제·상품군 분류·외환 배정 제한 등 완화 가능성이 높아 인도적 품목 외 소비재·산업재 거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은 KOTRA·이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EDD 절차히 철저 준수하며, 대금 수령 전 선적을 지양해야 함. 외환 배정 지연이 여전히 리스크 요인임
- 인도적 무역 체계 내에서 신중한 계획을 수립하면 안정적·합법적 수출이 가능하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상시 관찰할 필요가 있음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유망 산업(2025년 7월까지 수출 통계 기준)

- 석유·연료(HS 27)·금속·광물(HS 72)·석유화학(HS 39)이 이란 수출을 주도하며, 전체 수출 -23.7% 감소에도 총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큼. 에너지·광물 기반 제조·석유화학 처리 산업으로서 풍부한 자원과 산업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공함
- 석유·연료(HS 27): 2024년 190억 2,000만 달러(총수출의 34%)였으며, 2025년 7월 누계 6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6%임. 해당 통계는 원유 수출이 미포함되며(미 對이란 제재로 정부 기밀 관리), 정제유 및 관련 연료 제품을 포함함. 대규모 수출량과 자원 기반을 바탕으로 장기 성장 잠재력이 크며, 정제 제품·신규 파트너십에서 추가 기회가 존재함
- 금속·광물(HS 72): 주로 철강을 포함하며 2024년 55억 2,000만 달러(총 수출의 10%) 기록, 2025년 7월 누계 22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임. 국내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건설·제조 공급망을 지원하며, 부가가치 금속 제품 개발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회복 가능성이 존재함
- 석유화학(HS 39):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을 포함하며 2024년 51억 4,000만 달러(총 수출의 9%), 2025년 7월 누계 23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9%임. 포장재·건축자재·소비재용 플라스틱 수요에 힘입어 상대적 안정성을 보이며,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성장 여력이 큰 유망 산업임

(참고) 최근 이란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27	광물유 및 연료	38.4%	27	광물유 및 연료	34.4%	27	광물유 및 연료	27.4%
72	금속 및 광물	11.5%	72	금속 및 광물	10.0%	72	금속 및 광물	9.8%
39	석유화학	8.6%	39	석유화학	9.3%	39	석유화학	10.4%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9.16.)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광물유 및 연료(HS 27)
 - 국제 유가 변동·지속적 제재로 핵심시장 접근이 어려워 수출 감소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미·이란 제재로 미·이란 간 교역이 최소 수준이어서 미국 관세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임
 - 원유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하나 제재로 투자유치와 기술 도입이 어려운 상황임. 현재 중국이 유일한 주요 원유 구매국이며, 제재로 수출 대상이 사실상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음
 - 2025년 일일 원유 수출은 약 160만 배럴로, 2020년 80만 배럴 이하보다는 높으나, 2018년 제재 재도입 이전 250만 배럴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 미국 관세와 정부 정책적 지원 관련 구체 데이터는 부재하나,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량이 장기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임
- 금속 및 광물(HS 72)
 - 글로벌 공급 과잉·무역 제한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 수요둔화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음. 미·이란 교역이 최소 수준이어서 미국 관세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임
 - 정부 정책 지원 및 미국 관세 영향 관련 구체적 데이터는 부재임. 이란의 철강 생산능력은 여전히 견조하나, 국제 경쟁 환경에서 신규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임
- 석유화학(HS 39)
 - 국내 석유·가스 자원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생산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포장재·건축자재 수요 확대에 힘입어 타 산업 대비 안정적 성과를 보이는 편임. 미·이란 교역이 최소 수준이어서 미국 관세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임
 - 미국 관세·정책 지원 관련 구체 데이터는 부재하나, 석유화학 인프라·생산 역량이 지속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함

라. 투자

□ 외국인 투자유입 동향

- (규모·추이·글로벌 순위·전년 대비 실적 등)
 - 이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제재·정치적 불안정으로 제한적이며 변동성이 큰 편임. UNCTAD 기준 FDI는 2019년 15억 800만 달러 → 2020년 13억 4,200만 달러로 감소, 2022년 15억 달러로 회복 후 2023년 14억 2,200만 달러로 하락, 2024년 14억 4,9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함
 - 정부·IRNA 발표는 2021년 21억 9,900만 달러, 2022년 41억 9,300만 달러, 2023년 55억 3,100만 달러로 UNCTAD와 불일치하나, 최신 공식 수치로 인용되는 자료임. IRNA 기준 2023년 전년 대비 +32%임

- 2025년 4월 기준 승인된 FDI 프로젝트는 80건·70억 달러 규모임. 글로벌 순위 데이터는 부재이나, UAE(2024년 456억 달러)·사우디아라비아(2024년 157억 달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제재로 투자 흐름이 수시로 중단되어 데이터 연속성이 취약한 상황임
 - * 제재 영향으로 FDI 정체 및 UNCTAD와 정부·IRNA 통계 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상황임

□ 현지 주요 투자유치 산업

- (분야·투자국)
 - 2025년 4월 기준 최신 자료에 따르면 FDI는 농수산·재생에너지·자동차·화학·폴리머·광업·제약·보건·주택·관광·운송·서비스 등으로 유입되었음
 - 주요 투자국은 오만·독일·캐나다·인도·중국·러시아·튀르키예·UAE·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이라크·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재외 이란인 등임
 - IRNA(2022년) 기준 주요 투자국은 러시아(4건, 27억 6,000만 달러)·UAE(29건, 7억 100만 달러)·아프가니스탄(114건, 3억 달러) 순임
- * 제재로 데이터 연속성이 부족하며 UNCTAD·IRNA 간 수치 불일치 존재

□ 주요 경쟁국의 현지 투자 동향

- (중국) IRNA(2022년) 기준 중국은 20건, 1억 7,300만 달러를 투자한 주요 투자국으로, 중국은 화학·광업 등 분야에 투자하지만 제재로 규모가 제한적

□ 이란의 對韓 투자 현황

- (개요)
 - 이란의 대한(對韓) 투자는 매우 제한적이며 2019~2023년 연평균 800~1,000만 달러 수준의 소규모임. 2022년 1억 달러, 2023년 8,700만 달러, 2024년 8,900만 달러로 정체 국면임
 - 이란의 대외 FDI는 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튀르키예 등 인근국의 소규모 인프라·소매·서비스에 집중되는 경향임
- * 제재로 인해 한국 대상 투자 사례·산업별 세부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음

□ 한국의 이란 투자 진출

- 한국의 對이란 투자는 2018년 미국 제재 강화 이후 대부분 중단되었다. 2004~2018년 23건의 투자 신고 이후, 2025년 7월까지 기록이 없다. 2017년 투자 사례(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외에 최근 데이터는 없으며, 제재로 인해 교역 및 투자가 역대 최저 수준임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D사 이란 치과 기자재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D사는 치과 기자재(임플란트 등) 전문 기업으로, 2018년 이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생산 및 도소매를 운영
- (성공 사례) 제재 이전 이란의 치과 의료 시장 수요를 활용해 기술 전수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보
- (시사점) 제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제재 해제 시 의료기기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큼

* 제재로 인해 2018년 이후 한국 기업의 투자 사례가 없어, 2018년 대표 사례 기술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 이란 노동법은 현지 채용 우선 원칙을 적용하며, 외국인 근로 허가(1년)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이란인이 없음을 입증해야 발급됨. 간접 과정에서 행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용주는 이란인 대체인력 교육 의무가 있으며, 규정 미준수 시 허가 취소 위험이 있음. 사회보장 기여금(급여의 30%)·연 26일 유급휴가 등 의무 복리로 인건비 부담이 상승함
- 제재로 국제 인재 접근이 제한되어 HR 운영 복잡성이 확대될 수 있음. 참고로, 한국은 유급휴가 15일·사회보험 18~20%·비교적 간소화된 비자 절차를 갖추고 있어 비용·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정 산업 투자 금지 등 규제)

- 미국 ITSR 제재로 석유·가스·석유화학·원자력 분야 투자가 제한되며, 행정명령 13902 등으로 에너지 분야 제한이 확대됨. OFAC 지정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제3국 투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
- 이란 헌법은 석유 분야 직접 외국인 수권(concession)을 금지함. 외국인 투자 승인은 OIETAI를 통해 이뤄지며, 절차가 느리고 관료적일 수 있음
- EU 제재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투자를 제한함. 참고로, 한국은 대부분 산업에서 제한이 적고 승인 절차가 효율적이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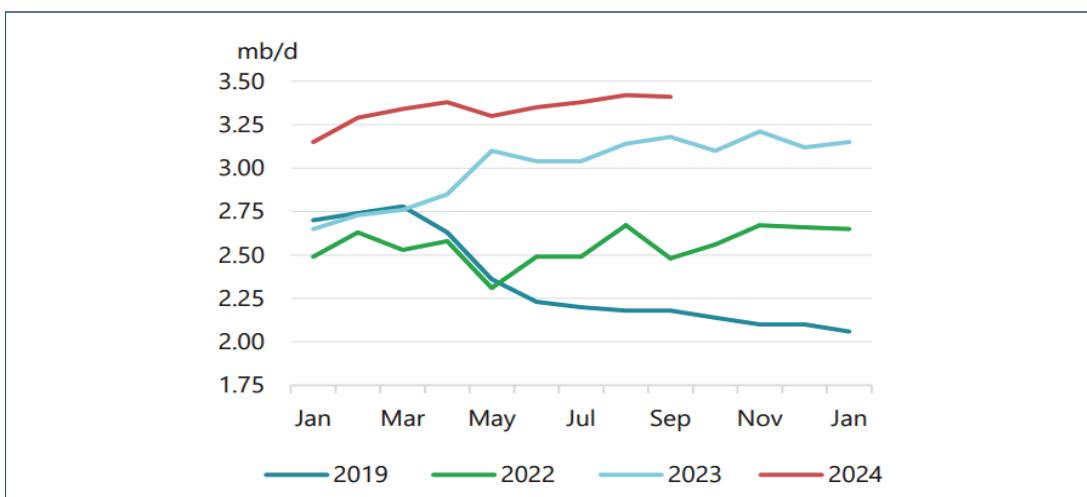
2. 유망 산업

가. 석유 및 가스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이란은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약 2,080억 배럴, 전 세계 12%, 중동 24%)·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약 30조m³, 전 세계 16%, OPEC 45%)임
 - 2024년 원유 생산량은 약 341만 배럴/일로 정격 생산용량 380만 배럴/일에 근접함. 2025년 2월 기준 천연가스 생산량은 약 11억m³/일이며, 이 중 10억 2,100만m³/일이 국영가스회사(NIGC)를 통해 국가 배관망으로 공급됨
 - 가스 산업 투자 부족·신규 수요 증가(주택·산업·석유화학)로 겨울철 공급 부족·배관망 압력 저하·공급 불균형이 발생함. 안정적 국내 에너지 공급·산업 운영을 위해 가스 산업 신규 투자·인프라 현대화가 필요함
 - 주요 기업은 NIOC, Pars Oil and Gas Company, Persian Gulf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 PetroPars 등이며, 약 100개 중소기업이 탐사·생산·유지보수·서비스 분야에 참여함

〈이란 원유 생산 통계〉



자료: IEA 2024년 석유 시장 보고서

- 최근 수출입 동향

- (원유·콘덴세이트) 2025년 수출은 평균 160만 배럴/일이며, 이 중 97% 이상이 중국향임. 2024년 원유 수출액은 OPEC 자료 기준 460억 달러를 상회
- (가스) 2023년 천연가스 수출은 LNG 8억 7,200만 달러, 액화프로판 3억 300만 달러, 액화부탄 2억 100만 달러,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4억 9,000만 달러로 총 18억 6,600만 달러, 튀르키예·이라크 등 인접국 파이프라인과 국제시장 대상 LNG·프로판·부탄 등으로 다변화되어 외화 확보·수익 다변화 측면의 전략적 의미가 큼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NIOC 2024년 생산 증대 및 성과

- 2024년 원유 생산량 247,000배럴/일 증가, 3~6월 추가 150,000배럴/일 증산. 대부분 NISOC 지역에서 발생, 설비 개선·송유관 가동 포함
- 공동유전·서부 카룬 개발로 세페르/주페르 54,000, 야란 6,000, 소하랍 2,300, 데흘란·다난 10,000, 아반·파야다르 웨스트 3,500, 체세메호쉬·달프리·파야다르 이스트 33,000 배럴/일 증산 달성

이란 석유 및 가스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NI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평균 원유 생산량 증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대비 하루 247,000배럴 증가 2025년 추가 증산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150,000배럴 추가 증산 완료 주요 유전 증산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페르/주페르 유전 : 하루 54,000배럴 야란 유전 : 하루 6,000배럴 소하랍 유전 : 하루 2,300배럴 데흘란·다난 유전 : 하루 10,000배럴 아반·파야다르 웨스트 : 하루 3,500배럴 체세메호쉬·달프리·파야다르 이스트 : 하루 33,000배럴 운영 및 시설 개선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NISOC(국영 남부이란석유회사) 지역에서 신규 및 보수 공정, 설비 개선, 송유관 가동 완료 가스전 개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다르(Madar) 가스전 개발 : 일일 약 13백만m³ 가스 및 40,000배럴 가스 콘덴세이트 생산 완료 국가 가스 불균형 해소에 기여 완료

자료: Dolat.ir, Tasnim News

이란 석유 및 가스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Pars Oil & Gas 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가스 생산 증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르스 남부 11B 블록 완전 가동 시, 국가 일일 가스 생산량이 2,8300만m³ 증가할 예정임 • 인필 드릴링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의 신규 우물 개발을 통해 South Pars 가스전의 일일 생산량을 3,600,000m³ 증가시킬 계획 • 플랫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uth Pars Joint Field의 가스 플랫폼 정비 92% 완료. POGC 직원들이 밸브, 전원, 송유관 등 핵심 작업 수행

자료: pogc.ir

- (우리기업 협업 수요)
 - 우리 기업은 드릴링 장비·정제기술·천연가스 처리설비 공급을 통해 NIOC·PetroPars와 협업 가능함. 한국의 LNG 처리·플레이밍 감축 기술은 이란의 가스 생산 확대 수요(2025년 11억m³/일)와 잘 부합됨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이란 원유·가스 생산 확대와 한국기술 협력 기회
 - 제재가 완화될 경우 이란은 남파르스 가스전과 웨스트 카룬 권역(아자데간·야다바란)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원유 생산능력을 약 458만 배럴/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원유 공급 안정화와 정유산업 활성화, 에너지 수출 및 외화 수입 확대로 이어질 전망임. 아울러 2026년까지 플레이밍 (가스 소각) 감축과 정제능력 전반 증설이 추진되면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고도화가 가속화될 것임
 - 한국 기업에는 드릴링 장비·가스 처리·정유(개보수·탈황·업그레이드) 설비 공급, LNG 처리·플레이밍 저감·에너지 효율 개선 등 공정기술 적용, EPC·엔지니어링 서비스·스키드형 모듈 수출·기술이전 및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진출 기회가 열림. 실무적으로는 EDD 등 제재·결제 준수체계를 갖추고 NIOC·PetroPars 등과 MOU 체결 후 파일럿 프로젝트로 레퍼런스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함

나. 석유화학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2024년 수출 2,900만 톤(130억 달러)을 기록했으며, 2024년 8월~2025년 7월 국내 순판매량은 1,600만 톤·96억 달러임. 산업 총 생산능력은 약 1억 톤이며, 연간 증설·신규 프로젝트 가동에 따라 2027년까지 1억 3,000만 톤으로 확대 예정임(제7차 5개년 개발계획 기준)

- 주요 석유화학 지주(holding) 동향

- Khaleej-e-Fars : 최대 지주로 생산·수출 비중이 가장 크며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변화되어 있음
- Shestan : 석유·가스 연계 생산을 중심으로 비료·각종 폴리머·기초화학에 집중함
- Petro Farhang : 규모는 작으나 메탄을 중심의 생산·수출로 수익을 창출함
- Ghadir : 생산량·제품 다양성은 낮으나 국내 기초화학 생산에서 중요 위치를 확보함
 - * Khaleej-e-Fars 산하 주요 생산기업
Bandar Imam Petrochemical, Nouri Petrochemical, Pars Petrochemical, Arvand Petrochemical, Shahid Tondgouyan Petrochemical, Khuzestan Petrochemical, Karun Petrochemical 등

• 최근 수출입 동향

- 2024년 이란 석유화학 수출은 총 2,900만 톤(130억 달러)으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생산·판매가 안정적으로 유지됨. 동 산업은 비석유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전체 비석유 수출의 25%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 중임. 신규 프로젝트 및 증설에 따라 향후 수출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석유화학 프로젝트 추진 현황

- 현재 약 19개 주요 프로젝트(생산 15개·원료공급 4개) 진행 중이며, 약 1,000만 톤의 신규 생산능력 추가 및 일부 품목 첫 출시 예정임
- 2027년까지 총 66개 활성 프로젝트(총 생산능력 3,500만 톤, 투자 26억 달러) 완료 예정이며, 이 중 28개는 전략적 중요도로 우선순위 지정됨. 최종 목표는 생산능력 1억 3,100만 톤 달성을 상·하류 체인의 균형적 발전

(참고) 이란 석유화학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N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프로젝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9개 프로젝트(생산 15, 원료 공급 4) 진행 중 - 신규 프로젝트로 약 1,000만 톤 생산능력 추가, 일부 제품 최초 출시 예정 • 투자 및 개발(2027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개 활성 프로젝트(총 생산 능력 3,500만 톤, 투자 26억 달러) 진행 중, 2027년 완료 예정 - 28개 프로젝트 전략적 중요성으로 우선 순위 지정 - 최종 목표 : 1억 3,100만 톤 생산능력 및 상·하류 체인 균형 발전

자료: Shana.ir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제재 완화 시 우리 기업은 생산설비·공정 최적화 기술 공급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서비스·부품·장비 수출을 통해 협업 가능함. 특히 NPC와의 합작 플랜트 운영·기술이전이 유망함

- 이란의 안정적 생산 기반과 확대되는 수출망을 활용하면 한국 기업의 다양한 형태 참여가 가능하며, 세계 2위 천연가스 매장(석유화학 주요 원료)을 바탕으로 장기·안정적 파트너십 형성이 기대됨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전략적 성장 전망

- 이란 석유화학 산업은 연간 생산·수출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아시아 시장의 지속적 수요와 경쟁력 있는 저비용 원료 활용이 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와 전략적 핵심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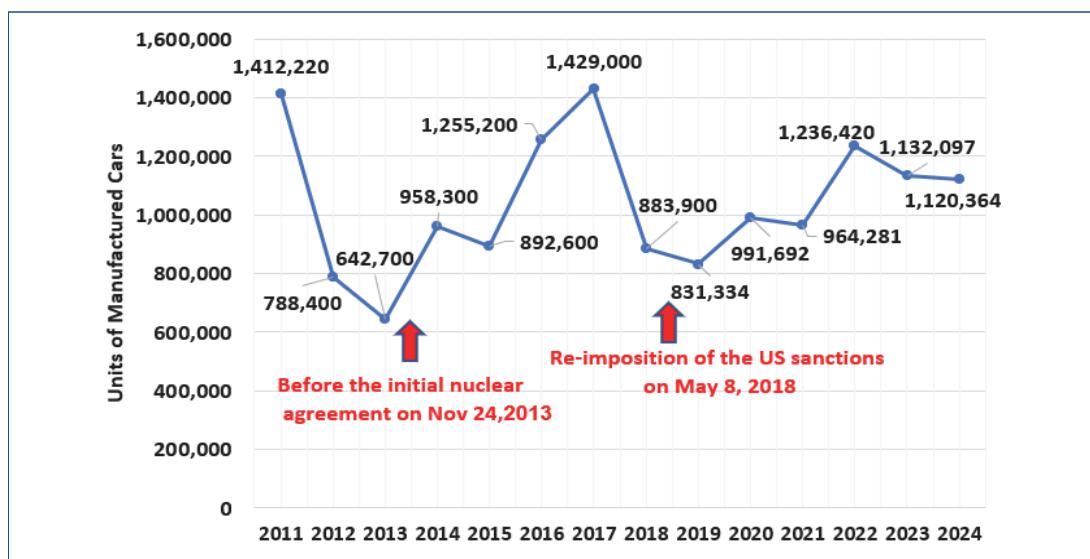
다. 자동차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2024년 이란 자동차 산업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부진한 한 해였음. 국내 3대 완성차업체 생산은 약 89만 8,000대로, 산업·광업·무역부(MIMT) 목표 130만 대 대비 31% 부족함
- 총 생산량은 2023년 919,499대 → 2024년 897,627대로 2.4% 감소함. CKD(반조립 수입 후 현지 조립) 물량을 포함하면 2024년 총 1,120,364대로, 전년 대비 11,773대 감소함
- 부진 요인은 외환 부족·전력 공급 차질·부품업체 채무 누적·구조적 손실 지속 등으로 파악됨

〈이란 자동차 생산 통계〉



자료: KOTRA 테헤란무역관

- 최근 수출입 동향

- 2024년 이란의 자동차 수입은 전년 대비 급증함. 승용차(HS 8703) 수입액은 2023년 8,140만 달러 → 2024년 86,720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7월 누적 74,6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7%를 기록해 외산차 점유율 확대가 뚜렷함. 다만 외환 부족·제재·고관세 등 구조적 제약으로 전체 수입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임
- 수출은 구조적 한계를 노출함. 승용차(HS 8703) 수출액은 2023년 3,780만 달러 → 2024년 990만 달러로 약 -74% 급감했으며, 2025년 7월 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이나 총액 520만 달러에 그쳐 글로벌 경쟁력이 미미한 수준임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2024년 이란 자동차 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 2024년 이란 자동차 시장은 Iran Khodro가 45.1%로 최대 점유율을 유지했으며(2023년 45.7%), Saipa가 30.6%로 뒤를 이었음(2023년 32.2%). 민간 계열인 Modiran Khodro는 12.8%로 전년 13.1% 대비 소폭 하락했고, Kerman Motor는 5.6%로 2023년 5.2%에서 소폭 상승했음. Bahman Motor와 Farda Motor는 각각 2.5%와 1.6%를 기록해 전년 1.9%, 0.7% 대비 확대되었으며, 기타 업체들은 이들보다 낮은 한자리 점유율에 머물렀음. 전체적으로 상위 2개 사의 과점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민간 브랜드의 점유율이 완만히 확대되는 흐름이 관찰됨

(참고) 이란 자동차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Iran Khod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동향 : 2024년 504,855대 생산으로, 2023년(517,421대) 대비 감소함. 정부의 차량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부품 및 원자재 가격은 시장 환율에 따라 상승하면서 제조원가와 판매가격 간 고리가 확대됨.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생산을 축소함. 또한 전력난으로 인한 정전과 부품 공급 지연도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Sai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동향 : 2024년 342,640대 생산, 2023년 364,635대 대비 감소. 정부의 차량 가격 통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 전력난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부품 가격 상승 및 자금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기타 민간 자동차 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동향 : 전반적으로 생산 증가, Modiran Khodro, Kerman Motor, Bahman Motor, Farda Motor 등의 성장 반영, 소규모 제조사들의 생산능력 향상 나타남.

자료: Khodrobank(2025.3.10.)

- (우리기업 협업 수요)

- 제재가 완화될 경우 우리 기업은 현지 완성차·부품사와의 협력에서 생산설비 현대화, 품질관리 시스템 정착, 스마트 제조 솔루션 적용, 핵심 부품 공급망 구축 등으로 참여 폭을 넓힐 수 있음. 전기차·친환경차 기술 도입과 공동 R&D, 현지 수요에 맞춘 모델·트림 개발도 병행 가능하며, 합작 투자와 기술이전, 교육·인력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할 여지가 큼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이란 자동차 시장 구조 개선 및 한국 기업 참여 기회

- 향후 이란 자동차 산업은 설비 업그레이드, 신차 개발, 친환경 전동화 확산, 제조 역량 제고를 통해 점진적 구조 개선이 예상됨. EV·하이브리드 수요 확대, 글로벌 공급망 연계 강화, 부품 현지화 추진은 한국 기업의 진입·확대 기회를 키우는 요인임. 다만 외환 부족·전력 불안·정책 불확실성 등 구조적 제약이 잔존하는 한 성장 속도와 시장 리스크가 병존할 수 있어, 단계적 진입과 결제·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가 필수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제재 환경과 인도적 무역
 - 현재 이란은 제재하에 있어 인도적 목적의 무역만 허용됨. 의료기기·의약품·일부 농산물·식품은 거래 가능 품목으로, 현 환경에서도 진출 가능성성이 높음임. 한국은 2020년 이후 의약품·의료기기 중심으로 인도적 교역을 지속 중임
- 제재 완화 시 유망 분야
 - 전자제품·자동차부품·기계류 중심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며, 제재 해제 시 확대 여지가 큼. 장기적으로 ICT·친환경 에너지·스마트 제조 분야의 진출 잠재력이 높음
- 시장 접근·협력 채널
 - 한–이란 FTA 체결 시 관세 인하·시장 접근성 강화가 가능함



성공/실패 사례

- 개요 : 이란은 현재 미국 경제제재하에 있으며 일반적인 상업 거래는 제한됨. 다만, 인도적 목적의 물품(의약품, 의료기기, 일부 농업·식품 품목)은 제재 대상이 아니며, 이들 품목은 한국 기업에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임.
- 내용 : 2020년 이후 KOTRA 테헤란 무역관은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사전검토) 방식을 통해 한국 기업의 인도적 물품 수출을 지원. 총 수출금액 : ₩112,974,484,524, 총 268건의 수출 사례가 이란 시장으로 이루어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제재하에서도 인도적 거래를 통한 시장 접근이 가능하며, 한국 기업의 신뢰성 있는 진출 경험 확보에 중요
 - 인도적 품목에 대한 전문성 확보,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부·무역기관과의 지속적 협력 필요
 - 이러한 경험은 제재 완화 이후 일반 상업 거래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G2G) 국가간 협력 유망분야

- 장기 개발협력
 - ODA/KSP를 통해 농업 자립화, 교육 고도화, 기반 시설 구축 등 장기적인 개발 협력이 가능함
 - 한-이란 경제공동위 의제 고도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 SOC·ICT 인프라 프로젝트, 한국 소비재(특히 중소기업) 진출 확대 등 협력 잠재력이 존재함



성공/실패 사례

- 개요 : 한국과 이란 간 G2G 협력은 제재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교육, 농업 분야에서 추진 가능
- 내용 : 2016~2019년 한국·이란은 다수의 KSP를 추진했으며, FDI 촉진과 지적재산권(IP)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어 제재 환경에서도 G2G 협력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음
 - 2016/17 KSP : OIETAI(이란 투자·경제·기술지원기구) FDI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정책 권고안 수립, KOTRA 총괄 기획 및 한국중소기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과 시행
 - 2017/18 KSP : 이란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정책 권고안 수립, KOTRA 총괄 기획 및 한국지식재산 전략원·한국발명진흥회와 시행, 이란 법무부 협업
 - 2018/19 KSP : 이란 지식재산권 체계 강화 프로그램 추진, KOTRA 총괄기획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시행, 이란 법무부 협업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제재 하에서도 G2G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이 현지 경험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 보건, 교육, 농업 분야에서 전문성 구축이 중요하며, 정부 간 협력 강화 필요
 - 이러한 경험은 제재 완화 후 일반 상업 거래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됨

나.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 현재 이란은 제재하에 있어 일반 상업 프로젝트 추진이 제한적이나, 의료·제약·농업·식품 관련 프로젝트는 추진 가능함. 제재 해제 시 전자·자동차·기계·ICT·석유·가스·석유화학·광물·철강·전력 등 다수 분야에서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성이 매우 높음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분야) G2B, B2B 등

- 우리 기업의 현지 기업 투자, G2B, B2B 등 주요 협력 사례
 - 현재 제재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실제 성공 사례는 제한적이며, 일부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진행 시 철저한 리스크 검토가 필요



성공/실패 사례

- 개요 : 현재 이란 제재 및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투자환경이 매우 제한적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국제 소송으로 실패한 경우도 존재
- 내용 : 대우전자 매각 관련 소송에서 한국 측이 패소. 2010년 이란의 Dayani 가문이 소유한 Entekhab 그룹은 대우전자 인수전에 참여하여 최종 인수에 성공하였으나, 국제 분쟁 발생으로 장기 소송 진행.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소송에서 한국 측이 패소하여 총 6,3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제재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는 피해야 하며,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란과의 거래에서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 공급망(자원개발)

□ 유망 공급망 분야

- 이란은 석유·가스·광물·철강·전력·자동차·가전 등 자원·산업 기반이 풍부하며, 한국 기업과의 기술·인프라 협력 수요가 존재. 제재 완화 시 장기적 공급망 협력 및 운영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높음



성공/실패 사례

- 개요 : 현재 제재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자원·운영 프로젝트는 제한적. 그러나 의료, 농업, 일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는 추진 가능
- 내용 : KOTRA 테헤란과 한국 기업은 인도적 물품 수출 경험을 기반으로, 강화된 사전검토(EDD) 체계하에서 의료·제약·보건 분야 공급망 구축 잠재력이 있음. 또한 의료 인프라 개선, 물 부족 대응·수자원 관리, 탄화수소 연료로 인한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 등 비민감 분야에서 ODA·KSP 프로젝트 협력이 가능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제재 하에서도 인도적 ODA 프로젝트를 통한 공급망 협력이 가능하며, 신뢰 구축과 현지 경험 확보에 중요

라. 기타

□ 물류 네트워크 현황

- 이란은 전략적 위치를 보유하나 도로·철도·항만 등 물류 인프라 현대화가 제한적이며 일부 지역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함. 주요 항만·산업단지 중심으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인프라 개선 시 공급망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임. EDD(Enhanced Due Diligence) 체계하 인도적 교역은 항공 운송만 허용됨

□ 시장 접근 및 규제 관련 과제

- 제재 및 외환 제한으로 외국 기업의 거래·자금 이동이 제한될 수 있음. 다만 EDD 활용·현지 네트워크 구축·KOTRA 지원 연계를 통해 제약을 최소화하고, 제재 완화 시 시장 진입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음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49 |
| 2. 진출전략 | 51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2024년 7월 마수드 페제시안 대통령 취임 이후 개혁파·최고지도자 간 균형을 지향하나 정책 일관성에는 한계가 존재
- 핵 합의 타결 시 제재 완화에 따른 FDI·무역 확대가 가능하며 중동 내 성장 잠재력이 큼
- 2025년 6월 미·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이후 지역 안보가 불안정해졌으며, UN 제재가 스냅백을 통해 재부과 됨
- “동방정책(Look to the East)” 기조로 러시아·중국·인도와의 협력이 강화되어 서방 제재에 대응 중
- 사회적 자유·경제 요인 등으로 시위와 갈등이 지속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상존함



경제(Economic)

- 2024년 3.5% 성장 후 2025년 0.3%로 급락, 2026년 1.1% 소폭 회복 전망(IMF)
- 인플레이션 고착(2024년 37.5%, 2025년 43.3% 추정)·환율 급락(2025년 89만 리알/달러)으로 소비력이 약화
-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아 제재 완화 시 2025년 약 150만 배럴/일 수준으로 회복 여지가 있음
- 무역수지 적자가 2023년 -109억 달러, 2024년 -119억 달러로 확대되어 수입 의존이 심화됨
- 원화 결제 기반 인도적 교역으로 금융 제약 일부 우회가 가능
- 정전·물 부족·겨울철 가스 부족이 산업 생산·생활에 부담으로 작용



사회문화(Social)

- 인구 8,800만 명(2026년 전망)·평균연령 31.6세로 젊은 소비층 시장 주도
- 25~35세(40% 이상)의 한류 선호로 한국산 소비재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실업률 9.5%(2025년)·생활비 상승으로 사회 불만이 증대되어 시위 재발 가능성 존재함
- 하잡 이슈 외 사회적 자유·경제 요인 등 다양한 불안 요소가 상존
- 대기오염 심화로 공공기관 휴무·학교 임시 휴교가 시행되며 환경·건강 관심이 증대



기술(Technological)

- 제재로 해외 첨단기술 도입이 제한되어 국내 산업 기술 발전 속도가 제약
- 치과 임플란트·진단장비 등 의료기기 기술 수입 수요가 높음
- 정부의 EV·재생에너지 투자확대로 2023년 이후 EV 1.2만 대 이상 도입되며 관련 기술·장비 수요가 증가
- 오염 저감 장치·환경 관리기술·의료기기 등 수입 의존적 기술 분야에서 해외 기업 참여 기회가 존재
- 지식기반 창업 지원이 강화되어 2024년 10,115개 기업이 등록
- 전력·수자원 인프라 취약으로 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수자원 관리기술 투자가 필요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임플란트·혈당측정기)으로 인도적 교역 기반 안정적 수출 가능
- 의약·의료기기 수출 경험으로 기존 네트워크 활용 용이
- 한류 확산으로 한국브랜드 인지도 ↑ → 화장품·식품 수요 확대

약점(Weakness)



- 시장 정보 부족 : 제재·철수로 현지 데이터 축적과 이해가 제한
- 금융·결제 제약 : 달러 결제 불법, 원화 결제 불가·지연 빈발
- 규제 대응 한계 : 인증·라이선스 절차 대응 역량 미흡

기회(Opportunity)



- 산업·농업 현대화 인센티브로 스마트팜·물 관리·에너지 절약·석유·가스·전력 인프라 등 장비·기술 수출 기회 확대
- 25~35세(40%+) 한류 소비층 확대로 화장품·식품 등 한국 소비재 수요 증대
- 핵 합의 타결 시 인구 8,600만 명 내수시장 개방으로 대규모 진출 여지 확대

위협(Threat)



- 경쟁 심화 : 중국·튀르키예·러시아·현지 저가·중간품 확대로 점유율 잠식 위험
- 제재·결제 리스크 : 對이란 제재 지속으로 금융결제·원유 대금 불안정, 무역 제약 상존
- 거시·사회 불안 : 고인플레이션(2025년 43.3%)·환율 급락·시위 등으로 소비 위축·불확실성 확대
- 규제 장벽 : 강화된 수입규제·비관세 장벽으로 인증·라이선스 지연 및 고가 제품 수요 위축 가능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의료기기 기술 경쟁력 활용, 인도적 교역 경험 기반 수출 확대
- 한류 영향력 활용,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 강화

無제재 무역 확대 및
해외 매출 기반 강화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중국·튀르키예·러시아 기업 대비 차별화 제품 제공
- 한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경쟁 심화 상황에서도 프리미엄 시장 공략

ODA/KSP·연계
제재 환경,
시장점유율을 확보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금융·결제 제약 극복 위해 점진적 시장 조사 및 현지 파트너십 강화
- 한류 기반 소비재 성장과 의료기기 수요 확대 기회를 활용, 내부 역량 개선 후 시장 진출

파트너십·유통망·규제
정보 축적, 소비재·의료
시장 단계적 진출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금융·수입 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 고위험 사업 제한 또는 철수
- 인플레이션 및 소비력 약화에 대응, 비용 효율적 제품 전략과 리스크 관리 강화

고위험 분야 비중 축소,
핵심 의료·소비재 중심
으로 안정적 매출 확보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의료기기 시장

- 이란 무역 전시회를 활용하여 EDD(인도적 수출)를 통해 의료 인프라 분야로 진출

소비재 시장
(이란 내수 시장)

-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K-뷰티·식품을 이란 청년층에 디지털 마케팅으로 확산

가전 시장

- 한국은 이란산 원유 구매를 이란이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삼고, 이후 현지 파트너나 직접 진출을 통해 시장을 개발할 수 있음

전기·수도·가스 부족
(에너지 위기)

- 현지 유통망을 통해 배터리·비상조명 패키지·소형 발전기 등 에너지 절감·효율 향상제품을 대리점 판매 방식으로 진출

석유·가스·석유화학
산업

- 현지 산업 행사,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네트워킹 채널 등을 활용하여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인프라 분야에서 대리점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함

자동차 산업

- 바이어 매칭·현장 미팅·공급망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자동차 부품 분야 B2B 진출 확대

전략 ①**인도적 채널(EDD) : 고품질 메디·뷰티 집중 공략 및 수요****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의료 및 미용 기기 수요 확대, 치과 장비·임플란트 필요, 미용 제품 선호 증가
 - 2024년 이란 광학·의료기기 수입액은 21억 3,600만 달러
 - 인도적 교역(EDD 메커니즘)을 통한 항공 화물만 합법적 수출 가능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 기업은 고품질·첨단 의료기기와 미용 제품 경쟁력 보유
 - KOTRA 협력을 통한 EDD 활용 및 전시회를 통한 파트너 발굴 가능

□ 현지 동향

- 수요 동향
 - 의료 수요증가에 따라 의료·미용 기기 수요가 확대됨. 클리닉은 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치과 장비·임플란트를 필요로 함. 도시 소비자는 글로벌 트렌드 영향으로 보톡스·주사 젤 등 피부 치료·미용 제품 선호함
 - 2024년 광학·의료기기 수입액 21억 3,600만 달러임
- 규정·물류 제약
 - 현행 규정상 EDD 메커니즘을 통한 인도적 교역만 합법적 수출 경로 운송은 항공 화물만 허용됨

한국 의료기기·제약 기업의 이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 진출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한국 의료·제약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이후 미 제재로 대이란 교역이 인도적 채널로 제한 • 한국 중소기업, EDD(강화된 실사) 체계하에 수출 진행 • 수출 실적 : 총 268건, 약 1,129억 7,448만 원 • 주요 품목 : 치과 임플란트·초음파 진단기·보톡스·필수 의약품 • 효과 : 제재하에서도 이란 의료 수요 지속 촉진

자료: KOTRA 테헤란 무역관

□ 유망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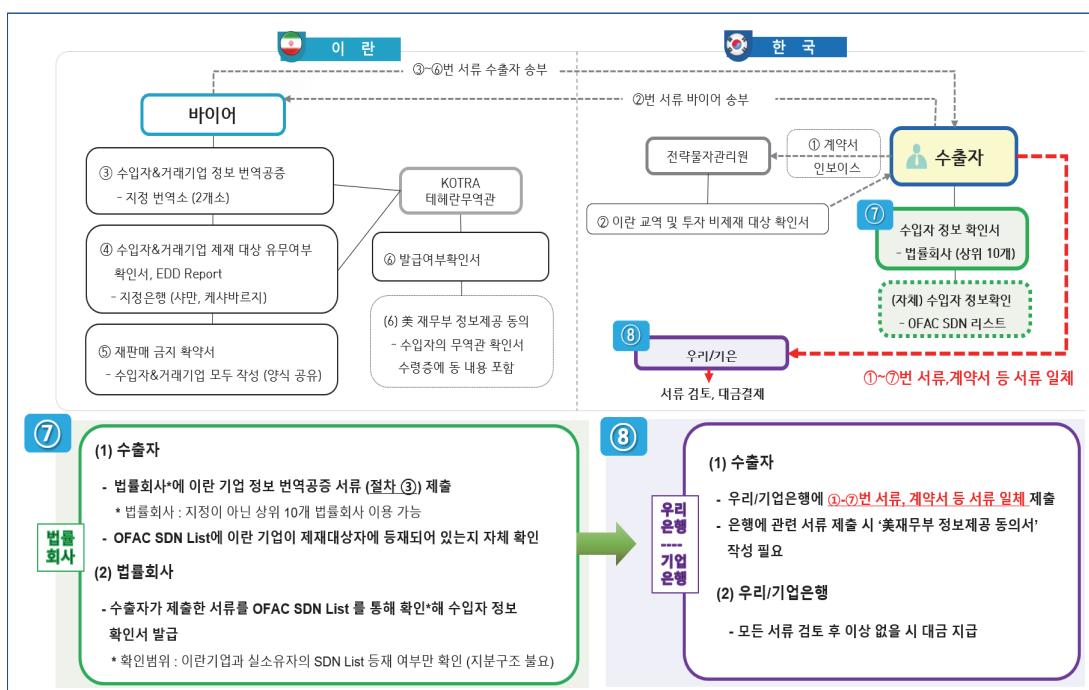
- 치과 장비 및 임플란트(Dental devices and implants)
 - 치과용 드릴·크라운·교정용 임플란트
- 피부 치료 및 미용 제품(Skin treatment and beauty items)
 - 보톡스·주사 젤·필러·레이저/IPL 소모품·미세침/주사기 등 일회용 키트

- 휴대용 진단 장비(Portable diagnostic equipment)
 - 휴대용 초음파·산소포화도측정기·혈당측정기·시험지·심전계(휴대형 ECG)
- 체외진단(IVD)·시약
 - 진단·실험용 시약(혈액·면역·분자진단)·POCT 키트·냉장보관 의료용 콜드체인 장비(의료용 냉장·백신 캐리어)
- 의약품·의료영양
 - 필수의약품(IFDA 허가 품목)·영유아/임상영양(메디컬 뉴트리션) 제품

□ 진출전략

- 이란 현지 전시회 및 KOTRA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잠재 파트너를 발굴하고, KOTRA 협업으로 EDD 기반 인도적 수출 방안 모색
- 이란 시장은 현재 EDD(인도적 교역)만 합법 경로이므로, 치과 임플란트·장비, 휴대용 초음파·산소포화도계, 소모품, 보톡스·필러 같은 “필수·제재 비해당” 품목으로 작게 시작해 반응을 확인하며 넓히는 전략이 적합함

〈인도적 교역(EDD) 프로세스〉



자료: KOTRA

전략 ②

내수 소비재 시장 공략 : K-뷰티·식품 중심 디지털 채널 확장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프리미엄 뷰티·식품 제품 수요 증가, 젊은 소비층 중심으로 K-뷰티·화장품 수요 확대
 - 인스턴트 라면 등 간편식 인기도 증가
 - 전자상거래·소셜미디어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 K-뷰티 및 식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입증
 - 디지털 마케팅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청년층 공략 용이

□ 현지 동향

- 프리미엄 뷰티·식품 관심 증가, 도시·청년층에서 스킨케어·화장품 수요 높음. 간편식(라면 등) 소비 확대
- 전자상거래 확대로 현지 플랫폼을 통한 판매 접근성 제고, 소셜미디어가 K-컬처 연계 구매에 영향

□ 유망 품목

- K-뷰티 제품(K-beauty products)
 - 마스크팩·세럼·클렌저·선케어·쿠션/립 등 메이크업·더마코스메틱
 - 할랄 인증·저자극/민감성 라인, 남성 그루밍 라인
- 한국 식품(Korean food products)
 - 인스턴트 라면, 즉석밥, 김, 스낵, 소스류, 음료, 영양·웰니스 간편식, 저당·고단백 제품군
- 퍼스널 케어(Personal care)
 -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로션, 핸드크림, 치약·칫솔, 위생·미용 소모품 등

□ 진출전략

-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이란 청년층에게 한국 제품을 소개하며 K-뷰티 및 식품 분야 진출
 - 내수 공략은 온라인 먼저, 규정 준수가 핵심임. 현지 마켓플레이스·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로 트래픽을 모으고 K-컬처 감성 패키지로 전환 유도

전략 ③**가전 수입금지 해제 대비 : 에너지고효율·스마트홈 중심
재진입 전략****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이란 중산층의 가전제품 수요 증가, 내구성과 에너지효율 중시
 - 도시화로 스마트홈 기술 관심 확대
 - 한국산 가전제품은 여전히 수입금지 유지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산 가전제품은 품질·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인지도 높음
 - 석유 재수입 협상을 활용해 시장 재진입 가능성 존재

□ 현지 동향

- 중산층을 중심으로 내구성·에너지효율 선호가 높고, 도시화로 스마트홈 관심이 확대됨
 - 2024년 전기장비 수입 73억 9,000만 달러로 수입을 견인
 - 한국산 가전은 명시적 금지 대상이므로 규제 변화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 시나리오가 필수

□ 유망 품목

- 대형백화
 - 인버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히트펌프), 식기세척기, 에어컨(고효율 인버터·멀티스플릿)
- 스마트 AV·디스플레이
 - 스마트 TV(OTT·자막/현지 앱 호환)·사운드바·프로젝터
- 주방·생활 소형
 -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전기포트, 정수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 에너지 솔루션·부품
 - 태양광 연계 하이브리드 인버터, ESS·스마트 플러그, 계측기, 컴프레서 등
- AS·소모품
 - 필터·소모성 부품·원격진단 키트(앱 연동)

□ 진출전략

- 제재 해제 이후 수입 제한 완화. 한국의 이란산 석유 재수입을 조건으로 활용하여 한국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함. 원활한 시장 접근을 위해 남아 있는 규제 장벽과 정책을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음
- 규제·정책 대응 로드맵
 - ‘금지 해제’ 3트랙 병행 : ① 정부·협회 채널 통한 규제 해제 협의, ② 제3국 OEM/현지 CKD 조립로 라우팅(원산지·라벨 규정 적합), ③ 현지 브랜드와 라이선스/공동개발

전략 ④**전력·수도·가스 부족 대응 : 효율·비상솔루션 중심 진출****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전력 부족, 수압 저하, 겨울철 천연가스 부족 지속
 - 에너지 절약 및 비상 전원 솔루션 수요 증가 및 정부는 에너지효율 제품에 인센티브 제공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 기업은 효율 조명·배터리·소형 발전기 분야 경쟁력 보유 및 현지 유통망을 통한 시장 진출 용이

□ 현지 동향

- 빈번한 정전과 압력 저하로 가정·상업·산업 현장에서 비상 전원·절감 설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제재 완화 시 에너지 기술·부품 수입창구 확대, 공공조달·ESCO 방식 프로젝트 기대

□ 유망 품목

- 전력 효율·수요관리
 - 주거·상업용 LED(다운라이트/하이베이/가로등), 스마트 스위치·센서, 고효율 변압기·모터(VFD)
 - 가정·상가용 ESS, 태양광 연계 하이브리드 인버터, 스마트 미터·에너지 모니터링(EMS)
- 비상 전원·연속운전
 - 소형 발전기(인버터형), UPS, 휴대형 파워뱅크, 통신·의료용 백업전원
- 수도 효율
 - 절수형 수도기기(에어레이터·센서수전), 누수 감지·원격검침(AMR) 모듈, 소형 펌프 효율개선 키트
- 난방·가스
 - 고효율 보일러·버너, 열회수(배기가스 열교환기), 산업용 공정 열관리 솔루션

□ 진출전략

- 현지 유통망 활용, 배터리·비상 조명 패키지·소형 발전기 등 에너지 절약·효율 향상 분야 딜러십으로 진출
 - 이란 에너지 부족 공략은 ‘효율·비상’ 번들로 B2B 총판·SI 채널 통해 빠르게 진입하고, 리스 등으로 초기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 적합함. LED+센서+소형 ESS, UPS+발전기, 절수기기+원격검침 등 패키지 제안과 함께 TCO/ROI(“절감액=상환금”) 자료로 의사결정을 앞당기고, IISO·전기안전·라벨 요건을 선확인해 설치·AS 신뢰를 확보가 중요함

전략 ⑤

석유·가스 인프라-장비·솔루션 중심 진출전략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노후 장비 교체 및 정유 설비·현대적 인프라 필요
 - 제재 해제 후 외국 파트너십 관심 증가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 기업은 드릴링·파이프라인·가스 처리 장비 분야 강점 보유
 - 전시회를 통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기회 확대

□ 현지 동향

- 노후 설비 교체와 정유·가스 처리 현대화 수요가 지속 확대
- 제재 완화 시 외국 기술·장비 파트너십 관심 증가, 신뢰 가능한 공급원 선호
- 2024년 기계류 수입 96억 400만 달러로 에너지 설비·부품 수요 재확인

□ 유망 품목

- 시추·생산(Drilling & Production)
 - 드릴 비트/머드펌프/블로아웃프리벤터, 케이싱, 튜빙, 인공채유 등
- 파이프라인·정압(Pipeline & Flow Control)
 - 밸브(볼·게이트·컨트롤), 피팅, 플랜지, 스크레이퍼, 누설감지, 카소딕 보호 등
- 가스 처리·정제(Gas Processing & Refining)
 - 컴프레서, 필터, 세퍼레이터, 탈황·탈수·열교환기, 리액터 제어(PLC/SCADA)
- 전력·안전(E&I & HSE)
 - 방폭 전기/계장, 화재·가스 감지, 플레이어 감축, 가스 회수(VRU)
- 유지보수(MRO)
 - 씰/가스킷, 베어링·펌프, 밸브 스페어·윤활, 코팅·예지보전(센서/소프트웨어)

□ 진출전략

- 경제제재 해제 시 이란 에너지 전시회를 활용해 석유·가스 인프라 분야에 딜러십 및 파트너십으로 진출
 - 이란 석유·가스 인프라 시장은 전시회·로드쇼로 초기 고객을 확보한 뒤, 현지 EPC·서비스사와 손잡아 딜러십·프로젝트 파트너 체계를 만드는 게 효율적임. 제안은 장비+설치+시운전+교육+AS까지 묶은 터키 패키지로 하고, INSO·방폭·압력용기 등 인증을 先 확인하며 페르시아어 매뉴얼·라벨·보증서를 표준화함

전략 ⑥ 석유화학 인프라-생산장비 진출전략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생산성과 효율 향상을 위한 최신 석유화학 장비 수요 증가
 - 저장·운송 장비 수요 확대
 - 제재 해제 후 외국 파트너십 및 기술이전 기회 확대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 기업은 반응기·저장 탱크·제어 시스템 등 첨단 장비 기술력 보유
 - 전시회를 통한 현지 협력 기반 확보 가능

□ 현지 동향

- 플랜트는 노후 설비 교체와 병목 구간 해소(반응·분리·저장·출하) 중심으로 CapEx를 집행하며, 에너지 절감·플레이어 감축·오염물 저감이 투자 우선순위
- 제재 완화 국면에서 외국 기술·장비 파트너십과 기술이전(현지 조립/유지보수) 선호, 신뢰 가능한 장기 AS·스페어 공급 체계 요구

□ 유망 품목(예시)

- 공정 코어 : 반응기, 믹서, 탑/리액터, 인더널 열교환기펌프, 컴프레서·필터
- 저장·운송 : 대형 탱크, 배관플랜지, 밸브, 로딩암, 질소 퍼지 시스템
- 제어·안전 : DCS/PLC·SCADA, 가스/화재 감지·SIS·방폭(E&I)·계측기(유량·압력·분석)
- 환경·효율 : 탈황/탈수·VOC 회수·플레이어 감축(VRU)·열회수(WHR)
- MRO : 씰·개스킷·베어링·코팅·예지보전 솔루션(센서+알고리즘)

□ 진출전략

- 제재 해제 시 석유화학 설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KOTRA를 전면 활용해 ‘리드 발굴 → 검증 → 수주’의 흐름을 구축함
 - KOTRA와 연계해 전시회·로드쇼 일정 조율, 바이어 사전매칭·통역·규제 체크리스트 확보로 초기 미스매치를 최소화함. 동시에 해외시장조사로 주요 단지 투자계획·EPC 발주 일정을 파악하고, EDD/제재 준수·원산지·페르시아어 라벨 요건을 제안서에先반영함

전략 7 자동차 산업-완성차·부품 공급 진출전략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완성차 생산 재개와 애프터마켓 확대로 신뢰 가능한 부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
 - 2024년 HS 87 수입 40억 2,000만 달러, 승용차 수입 10배 증가. 2025년 1~8월 한국 승용차 수출 700만 달러(전년 대비 +252%)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 대형 자동차 제조사는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완성차를 공급 가능
 - 한국 중소기업은 엔진, 서스펜션, 전기 부품 등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부품을 제공 가능
 -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 가격 민감한 이란 시장에 적합
 - 현지 이해관계자와 직접 연결 가능한 B2B 미팅 기회 활용 가능

□ 현지 동향

- 완성차·부품 수입업체는 재고 확보·차급 다변화·사후서비스 강화를 중점 추진
- 현지 조립(CKD)·부품 국산화 정책 병행으로 안정 공급·장기 AS가 가능한 파트너 선호

□ 유망 품목

- 엔진/구동 : 점화 플러그, 필터(에어·오일·연료), 워터펌프, 벨트/체인, 베어링
- 색시/제동 : 쇼크업소버, 브레이크 패드/디스크, 하부암/부싱, 허브·휠
- 전장/전자 : 센서(산소·ABS·MAP 등), 배선 하니스, 알터네이터/스타터, ECU
- 소모품/케미컬 : 윤활유·부동액, 브레이크액, 필터 키트, 와이퍼·전구
- 애프터마켓 액세서리 : 헤드유닛/후방카메라, 대시캠, 충전 모듈

□ 진출전략

- 제재 해제 대비 이란 자동차 전시회·부품 쇼에서 KOTRA 바이어 사전매칭을 활용해 OEM/딜러·부품 도매상과 1:1 미팅을 집중 진행. 파일럿 물량(핵심 SKU)로 성능·반품·리드타임 KPI를 입증 후 라인업 확대
- 장기공급·AS·스페어 계약을 패키지화(가격조정·환율 조항 포함)하고, 현지 총판+서비스 거점(공구·진단기 지원)으로 장착·클레임 대응력을 확보. 제재 단계별(인도적/부분 완화/해제) 로드맵을 제안해 CKD·현지 조립·라벨링로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둠



치과 장비 및 임플란트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기 유망산업과 연계되어 EDD 메커니즘을 통한 인도적 수출 가능 품목이며 비제재 품목으로 분류됨 이란의 의료 수요 증가로 클리닉의 환자 치료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수 수요가 존재함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점유율 2024년 기준 한국 35% UAE 23% 스위스 17% 독일 12% 오만 9% 한국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경쟁력으로 현지 의료진 선호도 상승 추세임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 내 의료 전시회를 통해 잠재 파트너를 발굴하고 KOTRA 협의 하 EDD를 활용한 인도적 수출 방안 모색 현지 규제와 인증 일정 고려하여 단계적 등록 전략 추진 전문가 의견 : S.K.I사의 Dr. M.N은 이란 시장 진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언급. 현재 미국·스위스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한국 제품은 동등한 품질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 따라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 |

초음파 기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기 유망산업과 연계된 휴대용 진단 장비로서 EDD 비제재 품목에 해당함 인구 증가와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클리닉 수요가 확대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음 이란 HS 901812 수입액은 2023년 22.035 백만 달러 → 2024년 26.373 백만 달러 약 19.7% 증가, 2025년 1~7월 30.952 백만 달러로 확대 중임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7월 점유율 UAE 50.9% 오스트리아 18% 중국 10.8% 한국 2.8% 태국 2.4%이며 기타국은 소규모 점유 2023~2025년 추이상 UAE와 오스트리아 급성장, 중국 소폭 감소, 한국은 소규모 틈새에서 안정적 위치 유지 한국 제품은 컴팩트 디자인과 비용 효율성으로 유럽산 대체 경쟁력 보유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 가능 소형 모델 중심으로 항공 운송 적합 제품을 제안하고 EDD 활용 수출 가능성 검토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이란 FDA 승인 선행 후 UAE·오스트리아 등 대형 공급사와 차별화하여 품질과 비용 효율성 강조 의료 전시회와 연계한 병원 프로젝트 동반 진출 및 파트너 발굴 추진 전문가 의견 : 심혈관용 초음파 장비 수입에 관심이 있는 M.K는 고품질이면서도 합리적 가격의 제품이 특히 젊은 의료진 사이에서 유망하다고 언급. 또한 이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GE 및 유럽계 브랜드와의 비교에서 가격·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

혈당측정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기 유망산업과 연계된 휴대용 진단 장비로 EDD 비제재 품목임 이란 성인 당뇨 유병률 약 14~14.2%로 25세 이상 기준 800~850만 명 수준의 잠재 수요 존재 HS 382219 수입액 2023년 161.306백만 달러 → 2024년 186.506백만 달러 증가, 2025년 1~7월 186.506백만 달러로 전년 수준 유지하며 성장세 지속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7월 점유율 UAE 42.4% 독일 19.5% 터키예 12.7% 한국 14.1% 중국 8.9% 한국 제품은 저가 중국 제품 대비 품질 차별화로 경쟁 우위 확보 가능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D 활용 수출을 기반으로 이란 FDA 사전 승인과 현지 에이전트 등록을 병행 정부 병원 조달 및 대형 프로젝트 동반 진출을 모색하며 품질과 비용 효율성으로 틈새 시장 공략 전문가 의견 : R.T.K사의 A.P는 이란에서 혈당측정기와 시험지 수요가 매우 높으며, 한국 기업이 완제품 대신 반제품(부품) 수출 후 현지 파트너와 생산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 또한 이 방식이 인센티브·수입 우선순위를 받아 통관·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 |

보툴리눔 톡신 및 피하 주사형 겔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용 시술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잠재적으로 EDD를 통한 인도적 교역 검토 가능 높은 성형 수요 속에서 저위험 미용 시술 증가로 기기 및 투여제 수요 확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총 수입액 21.179백만 달러, 한국 1.569백만 달러로 약 7% 점유 2025년 1~7월 총 수입액 1.166백만 달러, 한국 0.330백만 달러로 약 28% 점유로 상승하며 소규모 틈새에서 확대 2024년 주요 경쟁국 점유율 이탈리아 26% 스위스 17% 프랑스 13% UAE 12%, 2025년 이탈리아 14% 스위스 12% 프랑스 11% UAE 13% 한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제품과 경합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 FDA 규정이 복잡하므로 직접 수출보다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방식이 유리 규제 준수와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파트너십 모델 구축 전문가 의견 : A.S.사의 F.A 씨는 KFDA 인증을 받은 한국산 주입용 겔의 수입이 가능하지만, CE 또는 미국 FDA 인증이 추가로 있다면 시장 진입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 |

K-뷰티 스킨케어 제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재 유망 산업과 연계되며 이란은 중동 최대 수준의 화장품·개인 위생용품 소비 시장을 형성• 이란 여성의 소득 중 약 30%가 스킨케어에 지출되는 수요 특성이 존재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제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나 2024년부터 벌크 형태 수입 허용• 수입액 추이 2021년 26.85백만 달러 → 2022년 12.28백만 달러 → 2023년 16.28백만 달러 → 2024년 12.33백만 달러로 등락• 2025년 1~7월 0.9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0.32백만 달러 대비 약 190% 증가• 자유무역지대 반입 후 현지 포장·라벨링을 거쳐 본토 유통되는 구조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저부가 제품은 항공 운송 비용과 외화 배정 이슈로 EDD 적합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제재 해제 시 본격 진출 유망• 단기적으로는 벌크 소량 수출 후 현지 포장 유통을 통한 틈새 공략 가능• 이란 보건부 사전 승인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신뢰도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등록 진행 및 온라인 채널 협업으로 상용화 기간 단축 시도• 전문가 의견 : A.CFZ사의 M.T 씨는 완제품 수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벌크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로 수출한 뒤 이란 현지 기업과 협력해 포장 및 유통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 |

소형 발전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재 해제 이후 유망성이 높은 품목• 전력 부족 및 에너지 위기 이슈와 연계되어 여름철 전력 불안정에 따른 수요 급증• HS 8501 기준 2021~2024년 발전기 수입액 54% 증가, 주요 공급국은 중국, UAE, 튀르키예, 한국• 한국산은 내구성 선호가 높으나 유통 중 위조품과 중국 생산 라벨 훈재로 신뢰도 하락 이슈 존재• 전력망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구조적 수요 지속 전망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점유율 중국 58% UAE 13% 튀르키예 10% 한국 7% 독일 3% 기타 9%• 물량은 중국이 주도하나 품질 중시 수요에서 한국 일본 독일 제품의 브랜드 충성도 유지• 상업용 의료용 가정용이 동시 성장하며 계절적 전력난으로 수요 확대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 해제 시점을 대비해 현지 딜러십과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를 선구축• 비상 전원 패키지 제안과 정부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 고품질과 장기 보증을 차별화 포인트로 제시하고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전문가 의견 : E.Trading사의 M.A 씨는 소형 발전기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설명. 한국산 제품이 실제 'Made in Korea'라면 현지 바이어의 신뢰를 얻고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에너지 효율 LED 조명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재 해제 이후 유망한 에너지효율 품목• 전력 부족과 효율화 프로젝트 수요에 따라 LED 조명 수요가 지속됨• 한국 제품은 틈새에서 경쟁 가능하며 합작 투자와 공공 프로젝트 참여로 확대 여지 존재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총수입액 약 120.6백만 달러, 중국 97.2 백만 달러 80.6% UAE 18.6백만 달러 15.4% 기타 유럽 및 타국 소규모 점유• 한국은 2024년 약 1.45백만 달러 1.2%로 소규모 점유, 2025년 1~7월 0.039백만 달러로 감소 하며 틈새 유지• 전체 추세는 중국 압도적 점유, UAE 성장, 한국 소규모 안정, 유럽 및 기타는 감소 또는 변동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와 유통망을 활용해 파트너 발굴과 딜러십 확대 추진• 제재 완화 이후 품질 신뢰도 장기 보증 기술 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틈새시장 집중 공략• 전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M.M는 한국 제품의 높은 품질이 시장에서 핵심 변수라고 언급. 다만 가격이 중국산과 경쟁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합리적 기간 내 상당한 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주장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재 유망 산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K-컬처 인기에 힘입어 K-드라마·뷰티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 이란 젊은 층 사이에서 「주몽」「대장금」「바람의 나라」등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 소셜미디어·e-커머스로 연계 가능함• 젊은 층의 디지털 소비 확대에 따라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는 추세임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경쟁은 튀르키예산 콘텐츠이며 한국 드라마는 문화적 매력과 독창적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됨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OTT 플랫폼과 제휴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료 애플리케이션 등 유입형 콘텐츠를 제공• 이란 문화부 규정을 준수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추진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유료 구독 모델을 도입• 전문가 의견 : K.D.S사의 콘텐츠 제작자 M.K는 젊은 이란 시청자층에서 한국 드라마와 뷰티 콘텐츠 수요가 매우 크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힘. 그는 한국 콘텐츠가 튀르키예 콘텐츠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현지화될 경우, 이란 스트리밍·디지털 시장에서 단기간 내 점유율을 빠르게 넓힐 것으로 전망 |

교육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류 확산과 한국 문화 관심 증대로 한국 대학 교육 과정 수요가 확대됨• 이란 학생들은 튀르키예·필리핀(의학·치의학)·말레이시아·인도(의학)·유럽·캐나다 등으로 유학 중이며 한국으로의 대체 수요가 존재함• 한국 교육부-이란 당국 간 학위 상호인증 체결 시 절차 간소화와 수요 확대가 가능함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경쟁권역은 튀르키예·말레이시아·필리핀(특히 의학·치의학)·동유럽이며 유럽·캐나다는 선호도가 높으나 높은 학비와 비자 이슈로 진학 장벽이 존재함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헤란대·사리프 공과대학 등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엔지니어링·의료 관련 학위 과정을 제공• 한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한국 대학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비자 절차 지원• 이란 대학과의 교환학생 제도 및 복수학위 트랙을 확대• K-컬처 관심층을 겨냥한 한국 유학 집중 홍보 캠페인을 전개 |

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가스·석유화학 및 전기·수도·가스 부족·환경 위기 등 유망 산업과 연계되어 제재 완화 이후 인프라 현대화 수요가 증가 예상됨 노후 설비 교체와 수출 중심 생산 확대,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추진에 필수적인 서비스임 엔지니어링·설계 기술 제공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나 제재 해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장기 파트너십에는 리스크가 존재함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경쟁국은 중국·독일이며 한국은 비용 효율성과 첨단기술 역량으로 차별화 가능함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 에너지·석유화학 전시회를 통해 현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EPC 유형에서 엔지니어링·설계 중심으로 참여 환경 오염·물 부족·전력 부족 관리 솔루션과 연계한 엔지니어링 패키지를 제안하고 단계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병행 초기에는 기술 자문·기본설계(FEED) 중심의 제한적 참여로 신뢰와 레퍼런스를 축적한 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전문가 의견 : 유학 전문 이민·여행사 대표 S.M은 많은 이란 학생들이 해외의 높은 수준·신뢰도의 대학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설명. 그는 한국 대학이 영어 트랙 확대와 비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면, 현재 투르키예·말레이시아로 유학하는 수요를 대거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이란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인도적 교역	이란 헬스케어 전시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상담대행)	6월/이란 테헤란
인도적 교역	이란 국제 의약품 전시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상담대행)	9월/이란 테헤란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이란-미국 핵 협상(EU 중재)	미정	EU가 유엔 제재 스냅백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다시 나서도록 압박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6 회계연도 이란 정부 예산 발표	2025년 12월 22일	국회·수호위원회·전략조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 전까지 불확실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32회 이란 위생용품 전시회	2025년 4월 10~13일	세제/화장품/위생/셀룰로오스
제7회 이란 수출 역량 전시회	2025년 4월 28~5월 2	수출/무역
제29회 이란 석유 전시회	2025년 5월 8~11일	석유/가스/석유화학
제32회 이란 식품·농업 전시회	2025년 5월 19~22일	식품/농업
제20회 이란 자동차 부품 전시회	2025년 5월 29~6월 1일	자동차/자동차 부품
제26회 이란 헬스 케어 전시회	2025년 6월 8~11일	의료/제약/실험실
제34회 이란 가구 산업 전시회	2025년 7월 30~8월 2일	가구
제25회 이란 건설 산업전	2025년 8월 18~21일	건설/건축
이란 운송·물류 산업전시회	2025년 8월 28~31일	운송/물류
제8회 이란 제지·기계 전시회	2025년 8월 28~31일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제19회 이란 플라스틱·고무 산업전	2025년 9월 8~11일	플라스틱/고무/기계
제17회 이란 곡물·제과 산업 전시회	2025년 9월 17~20일	곡물/밀가루/제과
제24회 이란 제과 전시회	2025년 9월 17~20일	과자/초콜릿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28회 이란 컴퓨터·전자상거래전(연기됨)	2025년 9월 25~28일	전자/IT/전자상거래
제24회 이란 냉난방·공조 전시회	2025년 10월 4~7일	냉난방/냉동
제25회 이란 가전 제조업 전시회	2025년 10월 23~26일	가전
제25회 이란 산업 전시회	2025년 11월 2~5일	일반 산업
제19회 이란 광산 산업·건설·기계 전시회	2025년 11월 2~5일	광산/건설 기계
이란 엔진·산업 기술 전시회	2025년 11월 11~14일	터빈/엔진/산업 기술
제25회 이란 전력·신재생 에너지 전시회	2025년 11월 11~14일	전력/신재생 에너지
제22회 이란 금속 전시회	2025년 11월 20~23일	금속
제21회 이란 수처리·폐수 전시회	2025년 12월 3~6일	수처리/폐수
제10회 이란 병원 건설·장비 전시회	2025년 12월 13~16일	병원/헬스케어
제13회 이란 실험실 장비전	2025년 12월 13~16일	실험실 장비
제32회 이란 인쇄·포장 전시회	2025년 12월 23~26일	인쇄/포장
제10회 이란 농업 시스템 전시회	1월 2~5일	농업 기계
제31회 이란 섬유·기계·전시회	1월 2~5일	섬유
제23회 이란 목재·가구 장비 산업 전시회	1월 12~15일	목재/가구 장비
제26회 이란 통신 전시회	1월 22~25일	통신/IT
제4회 이란 유라시아 연합 무역 전시회	2월 1~4일	무역/유라시아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노우영	관장	테헤란무역관	+98-21-2637-6558	ktyoung@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이란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59-1 (95320)